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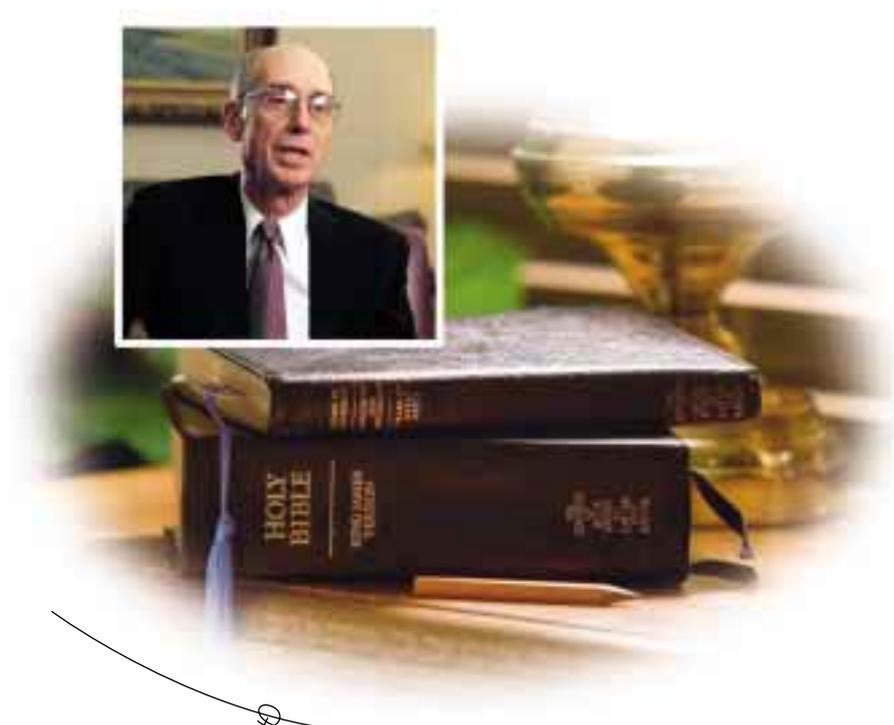
표지 이야기:

경전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음, 8쪽

올바른 미디어를 선택함, 21쪽

침례 성약, 친4쪽





“가끔 저는 교리를 알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다. 가끔 저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다. ... 경전을 통해서 저는 늘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찾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영감과 가르침과 답을 얻습니다.”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8쪽 참조.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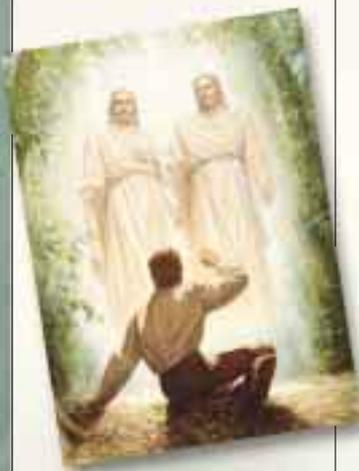
표지

앞: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뒤: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과 로버트 케이지.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존 루크.



"육신, 성스러운 선물", 16쪽 참조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들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8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의 인터뷰
- 16 육신, 성스러운 선물 *다이앤 엘 스팅글러*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선교 사업을 기뻐하며
- 28 교리와 성약의 메시지: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장로*
- 32 가족 강화: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 34 감리 감독단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42 후기 성도의 소리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나 티모피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앤 아 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
사라진 지갑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루시오스*
- 48 애독자 편지

"야영지에서 구조됨", 26쪽 참조

청소년

- 13 포스터: 훌륭한 태도를 키움
- 14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면 *린드세이 티 딜 장로*
- 21 제언 목록: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 22 어느 선교사의 소망 *타파드즈와 탄자니*
- 26 야영지에서 구조됨 *마리아 에스피노사 알베알*
- 37 짧은 메시지
태풍과 시련 *퍼시벌 토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루이스 우발도 파디아 오르티스*
- 38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헨리와 제널 콜*
- 47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마가렛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난폭한 자에게 맞서서
- 친8 친구가 친구에게: 응답된 기도 *제럴드 앤 렌드*
- 친10 로간의 침례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 친12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십 리를 동행하여 *바바라 호프*
- 친13 요나의 회개
- 친14 선장의 아들 *리사 퍼발리우스*



맥케이가의 농가, 유타주 헨츠빌, 신시아 엠 맥케이

제9대 제일회장단 회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년)는 유타주 옥든 근처 산악 지대의 아름다운 계곡에 위치한, 헨츠빌의 이 집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이 농장에서 어린 데이비드는 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는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웠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손자 로버트의 부인인 미술가가 오른쪽에 있는 맥케이 회장의 커다란 말 소니 보이를 그렸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틴,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아담 시 윌슨, 슈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김벌리 펠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프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이철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72호, 제 42권, 제 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신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uly 2005 No. 7. L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본 페이지를 활용하면 리아호나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물론 공과 시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8쪽: 여러분이 기자처럼 식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 기사에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활용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가 제시한 답을 읽는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육신, 성스러운 선물”, 16쪽: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자가 말한 내용을 토론한다. 마지막 세 단락을 큰소리로 읽고 이 기사에서 논의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38쪽: 언제 개척자처럼 느꼈는지 설명하고 오늘날이 세상에서 개척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도록 가족에게 부탁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친2: 가족에게 언덕 위에 있는 성전 그림을 그리게 한다. 여러분은 성전에 대해 어떤 영감을 받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경험을 나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공부하고, 가족에게 그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도록 부탁한다.

“응답된 기도”, 친8쪽: 가족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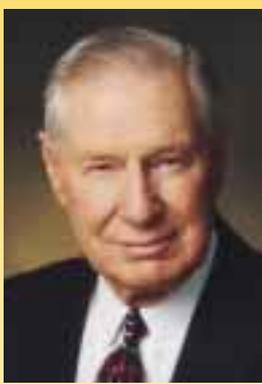
엘마서 37장 37절을 공부하고, 기도가 응답된 경험들을 나눈다. 제럴드 엔 런던 장로의 기도에 대한 경험을 큰소리로 읽는다.

기도의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로간의 침례”**, 친10쪽: 가족에게 자신이 침례 받았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침례 받았을 때 느낀 것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네모난 색종이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자신들의 현 위치를 나타내는 네모에 서 있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찬, 2, 친4
가르침, 1, 8	소망, 22
가정 복음 교육, 7	속죄, 16
가정의 밤, 1	조셉 스미스, 25, 28
가족, 32	신권, 34
감리 감독단, 34	십일조, 42
개척자, 38, 47, 친14	역경, 22, 26, 28, 37, 42
경전 공부, 2, 8	영감, 42
교회사, 47	예수 그리스도, 16, 28
기도, 친8	용기, 37, 친6
모범, 친2	육신, 16
미디어, 21	지도력, 47
방문 교육, 25	청녀, 26
병고침, 2	초등학교, 친4
봉사, 2, 26, 28, 친12	침례, 친4, 친10
선교 사업, 22, 25, 37, 42, F8	태도, 13
성신, 2, 8, 14	확언, 친4, 친10
성전 및 성전 사업, 2, 16, 42, 친2	회개, 친4, 친13
	희생, 친14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저는 상심, 실의, 고통, 고뇌, 절망 등이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¹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입니다. 고통은 모든 인류의 숙명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의 아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상처를 보고 놀려대겠지.”²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도전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바쁜 사회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즐겨 쓰시던 치료 방법 중 몇 가지는 더이상 효력이 없는 듯합니다. 손을 움직여 일하거나 땅을 경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요구 사항, 다양한 주장, 애원하는 식의 판매 수법, 짜를 듯한 소음,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대인 관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제 기능을 다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평화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리만치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의 압력은 대단히 큼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욕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는 힘이 자꾸만 증가되어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회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의주의나 재화의 획득을 위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음, 부정직, 폭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악에 대항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아니냐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³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영혼에 위안을 가져다주는 치유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이 유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생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제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위안은 하나님의 영광 더 자주 교통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영적인 치유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에 대한 사례는 애리조나 주의 리 선착장에서 초기 뱃사공으로 일한 워렌 엠 존슨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66년 여름, 젊은 워렌 존슨은 금을 캐서 행운을 잡겠다고 서부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믿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신체뿐 아니라 영을 고치는 일에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은 영혼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으로 몹시 앓게 되었으며, 동료들은 그를 바운티폴의 어느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아래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집 딸들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는 마당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친절한 가족은 낫선 그를 집안으로 데려다 회복될 때까지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리 선착장의 나룻배 사공이 되었습니다.

1891년 워렌 존슨 가족은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디프테리아로 네 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네 자녀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1891년 7월 29일자로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형제님,

“1891년 5월에 투바시티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유타 리치필드에서 이 곳으로 와 친구들을 방문하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팡기취에서 한 자녀를 매장했으며, 그 후에 마차나 자신들의 몸을 소독하지도 않고 죽은 아이의 옷을 세탁하지도 않은 채 우리 집으로 왔으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이 곳에서 힘든 사명을 수행하고 있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십일조를 바치고, 가족 기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반만에 [만아들이] 제 팔에 안긴 채 숨을 거두었고, 두 아이가 또 그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수행해야 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24시간을 금식하고, 저는 혼자서 40시간 동안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지 일주일쯤 뒤에 열다섯 살 된 딸 멜린다마저 쓰러졌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지만, 그 아이도 곧 동생들을 따라갔습니다. ... 사랑스러운 세 딸과 한 아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갔으나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아홉 살 된 큰딸 아이가 지금 그 병으로 누워 있으며 우리는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대로 생활하는 형제

워렌 엠 존슨”⁴

존슨 형제는 친구 워렌 풋에게 쓴 편지에서 영적인 평안을 찾았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분명 이 일이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기는 하지만 나는 구원을 향한 길에 올랐으며, 어떤 시련이 내게 닥치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쇠막대를 굳게 잡을 결심을 했다고 자녀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네. 나는 내 의무를 게을리해 본 적이 없으며, 권능을 가진 자녀가 내 머리에 부여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생활하길 바라는 나의 형제들의 신앙과 기도를 소망하며 믿는다네.”⁵

신앙개조 제7조는 영적인 은사 중에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신체뿐 아니라 영을 고치는 일에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은 영혼을 평화롭게 해 줍니다. 이 영적인 위안은 영적인 은사를 구함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고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매우 충만히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겸손하고 합당하게 간증을 나눌 때 오며, 또한 성별된 기쁨을 붓고 아픈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로서 “그의 회복의 능력”⁶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보혜사를 통해 병 고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성전 사업을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의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세상의 많은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성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1897~1988)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몰몬경을 읽는다면, 이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경전의 영이 증대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염려가 커 갈 것입니다. 다툼의 영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욱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들에게 조언할 것이며, 자녀들은 그 조언에 더욱 귀 기울여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이 증대될 것입니다. 신앙,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충만하여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⁷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담배, 술, 차, 커피를 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 면에서 보여지는 지혜의 말씀의 이점이 오늘날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혜의 말씀에는 이 권고를 기억하여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⁸라는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골수는 오랫동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뼈에 골수를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는 시대에서 “그들의 뼈에 골수를”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성약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⁹

만일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오늘날 세상 일에서 파괴적인 많은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병 고침은 커다란 단체 모임에서가 아니라 성찬식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드리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웃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훌륭한 신 감독님은 연사들에게



복음 원리나 주제를 다루도록 지명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성신의 권세로 이야기하여 청중이 그 안에 담긴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줍니다. 또 이들은 겸손한 간증과 부드러운 권고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청중들은 진리의 영으로 가르친 것을 이해하고 간증을 얻게 됩니다.

성찬식은 경건하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과 노래를 통해 예배하는 것도 병 고침의 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름답고 경건한 찬송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께 찬양과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노래를 통한 예배는 특히 경건한 태도로 참석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단합시켜 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영적인 병 고침은 또한 겸손하게 간증을 드리고 들음으로써 옵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 드리는 간증,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 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성실한 회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과 선지자들”¹⁰에게

성 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성실한
 회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도 완전한
 영적인 병 고침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도 완전한 영적인 병 고침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가 세상에 의해 거부되어 온 오랜 역사에 근거할 때 이러한 일은 인기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인도하고 지휘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독과 지부 회장,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과 지방부 회장들을 지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볼 때, 궁극적인 영적인 병 고침은 자신을 잊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기록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동료들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음식이나 물건들을 기꺼이 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서 살았던 우리는 막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까지 내주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의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들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즉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지닌 최후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¹¹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¹²

우리가 위안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기도는 가장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권세에 의해 기도하라고 배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판단에 따라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참된 행동은 영혼에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해럴드 비 리 회장님 (1899~1973년)은 기도는 늘 응답되지만, 때로는 주께서 안 된다는 대답을 주실 때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¹³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진리와 지혜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¹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치유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한 상처는 “치료 기술”로 고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1838~1918년)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치료는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반적인 선한 의지와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는 동정어린 관심에서 우러난 애정과 자비심으로 가능합니다.”¹⁵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¹⁶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 늘어버린 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용서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¹⁷

완전히 회개하고 난 뒤의 치료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¹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의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¹⁹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²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치유가 가능케 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²¹

또 해의 영광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²² 그때에는 신앙과 희망이 고통과 실의, 고뇌, 번민, 절망을 대신할 것이며, 애타게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하셨더라”²³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

주

1. 시편 147:3.
2. 로미오와 줄리엣, 2.2.1.
3. 빌립보서 4:7.
4. P. T. Reilly, “Warren Marshall Johnson, Forgotten Saint”, *Utah Historical Quarterly*, 1971년 겨울, 19쪽에서 인용.
5. Warren Foote *Autobiography*,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5권), 2:260~261.
6. 니파이후서 25:13.
7. Conference Report, 1960년 4월, 112~113쪽.
8. 교리와 성약 89:18.
9. 교리와 성약 89:19~21.
10. 에베소서 2:20.
11. *Man’s Search for Meaning*(1959년), 86쪽.
12. 누가복음 17:33.
13.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년), 127쪽 참조.
1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9쪽.
15. 복음 교리, 236쪽.
16. 이사야 1:18.
17.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80쪽.
18. 제3니파이 9:13.
19. 마태복음 11:28.
20. 베드로전서 5:7.
21. 예레미야 31:13, 25.
22. 요한계시록 21:4.
23. 앨마서 31:38.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누, 물 및 붓대 등과 같이 작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여 주거나 가족에게 그러한 물건들을 보여 달라고 부탁한다.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절차에 대해 토론한다. 파우스트 회장에 따르면, 왜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인 병 고침이 필요한가?(처음 네 단락 참조) 병 고침의 은사를 얻기 위해 파우스트 회장이 언급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해 간증한다.

2. 워렌 엠 존슨의 이야기를 큰소리로 읽거나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그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영적인 상처와 치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파우스트 회장이 성찬식에 대해 말씀한 것을 읽는다. 가족에게 성찬식 참석을 통해 성신을 느끼고 치유되도록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4. 파우스트 회장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지적한다.(아름서 2:8 참조) 여러분에게 감명을 준 성구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나눈다.

질문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개인적인 영적 발전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과 통찰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어떻게 경전 공부가 개인적으로 장로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아이어링 장로: 제 생애를 통해, 경전은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방편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작은 성경책을 받았습니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신약전서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사랑에 관한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끌렸습니다. 어찌 됐든, 비록 어렸지만, 저는 그 장이 제가 언젠가 갖게 될 가족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축복문에서, 축복사는 언젠가 제가 갖게 될 가정에 관한 느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을 때 느낀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전은, 제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제가 처한 상황과, 제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경전은 아직도 그분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 사항이 바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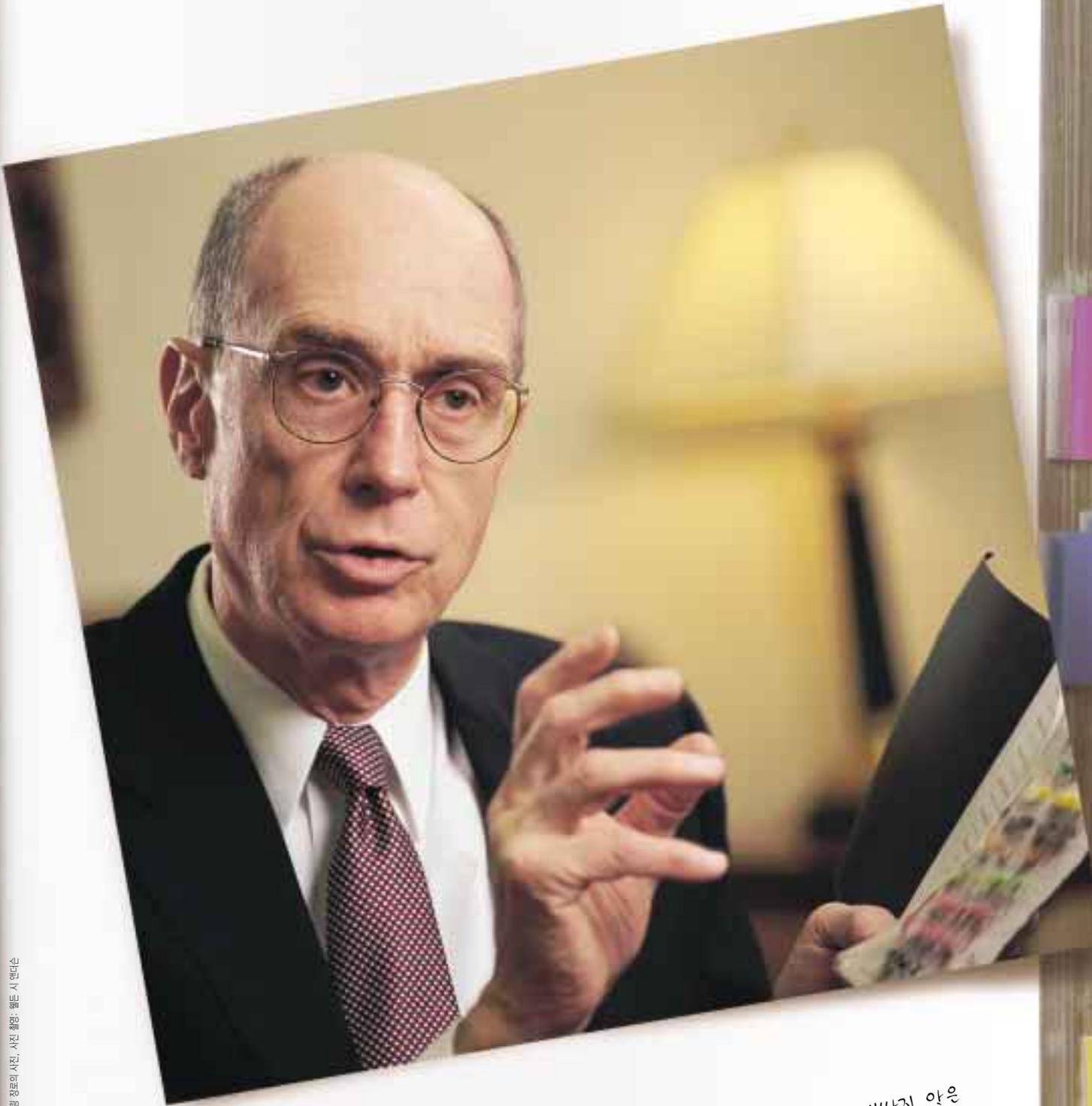
가끔 저는 교리를 찾아보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니다. 가끔 저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경전을 읽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혹은 “그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늘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찾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 영감과 가르침과 답을 얻습니니다.

왜 우리는 몰몬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까?

아이어링 장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우리는 그 책을 통해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니다. 우리는 그 책이 커다란 권능을 갖고 있음을 압니니다. 그 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니다. 그 책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니다. 가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을 경우, 여러분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니다.

주님은 몰몬경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니다. 이 책은 다른 경전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정 생활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 책의 흥미있는 구성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니다. 그것은 가족에 관한 책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책입니니다. 그것은 가족과 더불어 시작되고 가족과 더불어 끝나며, 우리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니다.

그 책을 정기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몰몬경을 집어 들고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으면, 성신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게 개인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몰몬경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임을 압니다.

장로님은 경전 공부에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어링 장로: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왔을 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제게 비싸지 않은 경전을 구입해서 새로운 부름에 관해 연계 될 통찰과 계시들을 표시해 두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경전을 구입해서 통찰력으로 얻은 것들을 표시해 두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사도로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 답들을 타자로 치고, 색깔 코드를 만들어 그것을 성경전 앞에 풀로 붙여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개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찾을 때마다, 푸른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주제 색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해 경전을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녀나 배우자를 잃는 것과 같은 위기에 당면할 때, 우리는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경전 구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 사항을 예상하시고, 그에 대한 도움을 경전에 마련해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후기 성도들은 경전 공부를 어떻게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아이어링 장로: 여러분의 바쁜 일정이 경전 공부를 밀쳐내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 이후로 제가 경전을 읽는 방법은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여덟 살이 되기 전에 그런 방법 덕분에 몰몬경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따르지 못할 상황이라면, 경전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면, 경전을 읽지 않을 경우 뭔가 빠뜨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음식과 비슷해서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경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정기적인 식사를 거르지 않으며, 정기적인 경전 공부도 거르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에서 금식과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이어링 장로: 우리는 가르침을 구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며,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식의 금식이라면, 효과적인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경전을 읽을 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구하면서 경전을 읽을 때 금식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차 대회가 있기 직전에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대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주님께서 제가 알기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초점이 제가 경전을 읽을 때 그대로 옮겨집니다. 금식과 기도는 경전을 공부할 때 함께 작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들과 경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가족 경전 공부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가르치실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가 경전을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링 장로: 우리는 모두 가족 경전 공부에 대해, 특히 자녀들이 십대가 되었을 때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성공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함께 불러모아 놓고 경전을 읽는 일은 더 쉽습니다. 자녀들이 차츰 성장해가면서, 때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전을 읽고 저녁에 읽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읽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의 여섯 자녀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경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이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경전 공부가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따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 공부가 그들이나 여러분에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강제로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여러분 스스로 경전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경전 공부는 그다지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전 읽기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경전을 읽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읽는 일은 십대가 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십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 차라리 혼자 읽겠어요." 제가 가족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상황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혼자 읽을 때 뭔가 배우는 것이 있지 함께 읽을 때는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십대가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로 여기십시오. 주요한 목적은 그들이 경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십대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방에 가서 읽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경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뭐 하고 싶은거 있어요?"라고 물으면 아내는 "저한테 경전을 좀 읽어 주세요."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경전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미나리가 청소년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러링 장로: 저는 여러 해 동안 교회 교육감으로 봉사했는데, 세미나리가 세 가지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청소년들은 신앙을 나누고 경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간증을 갖고 있는 교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간증을 할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경전에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세미나리 교사들은 성구 찾기, 임무 지명 및 성구 익히기 등 모든 방법을 다 활용했습니다. 학생에 따라 성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세미나리가 제대로 시행될 때, 여러분은 간증을 갖고 있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와드나 지부의 교사로서 승인된 교과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이러링 장로: 교회 교과 과정은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르는 교사는 학생들이 경전에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미나리가 제대로 시행될 때, 여러분은 간증을 갖고 있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반 토론 시간에 학생의 필요 사항이나 관심사를 말해 주는 경전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실제로 교사가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고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전을 사용하는 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기회입니다.

저는 리스 대학교(현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어떤 훌륭한 교수와 함께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성구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그가 경전에 정통하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개의 성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많은 성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기억력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 바로 그 성구를 찾아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짧은 성구가 긴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교실에 있는 누군가의 질문이나 관심사에 직접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모범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경전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경전 공부에서 성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어링 장로: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자주 반복되는 그 확증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신앙에 의해서입니다.

저는 집사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년단 부단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침착성을 잃기 시작할

경우 저는 잠시 동안 한두 개의 성구를 읽어 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받은 다시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습니다. 경전의 말씀은 성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실에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성구를 읽거나 학생에게 성구를 읽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그것은 영을 초대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경전을 공부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이어링 장로: 여러분이 참으로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기] 시작할 경우, 조만간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쿱(1915~1985년) 장로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경전에 해박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분이 경전을 인용하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시고 있는 건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일반적인 말씀은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에도 경전은 그분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저는 그분이 문학적으로 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분의 경전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은 대화 중에 우연히 성구를 인용하셨고, 그것은 경전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분명 그분은 경전을 잘 알고 계시며, 경전은 그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 주님처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교회 잡지의 래린 포터 건트가 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훌륭한 태도 키우기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요?
인생은 사진처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분에게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줍니다.
(교리와 성약 78:18 참조)

여러분이 귀기울인다면



린드세이 티 델 장로

지역 칠십인
호주/뉴질랜드 지역

오전 9시 30분에 저는 법대 도서관에 가서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치를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영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려 한다.”

저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성장했습니다. 해밀턴에 있는 교회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많은 훌륭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무패를 자랑하는 럭비 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회계 담당자가 와드 감독님이었는데 저는 그분 사무실에서 갖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교사들로부터 신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소년들의 필요 사항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영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세미나리를 하지 않았으나, 대학에서 종교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년 동안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물문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저는 물문경을 다 읽지 못해 하루는 밤새도록 그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물문경을 읽는 동안 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물문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을 느끼면서 경전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냥 영을 느끼는 것과 영을 인식하고 영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영을 인식하고 영에 따라 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됩니다.

후에,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저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타히티)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갔으며

선교사 훈련원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프랑수와 타히티어, 두 개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영혼 깊은 데까지 겸손해지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선교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영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영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을 지닐 때, 언어를 배우는 일도, 선교 사업도 효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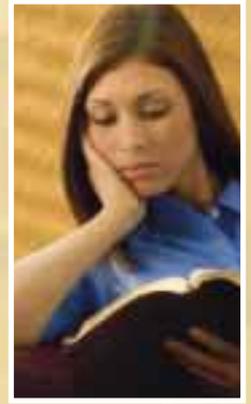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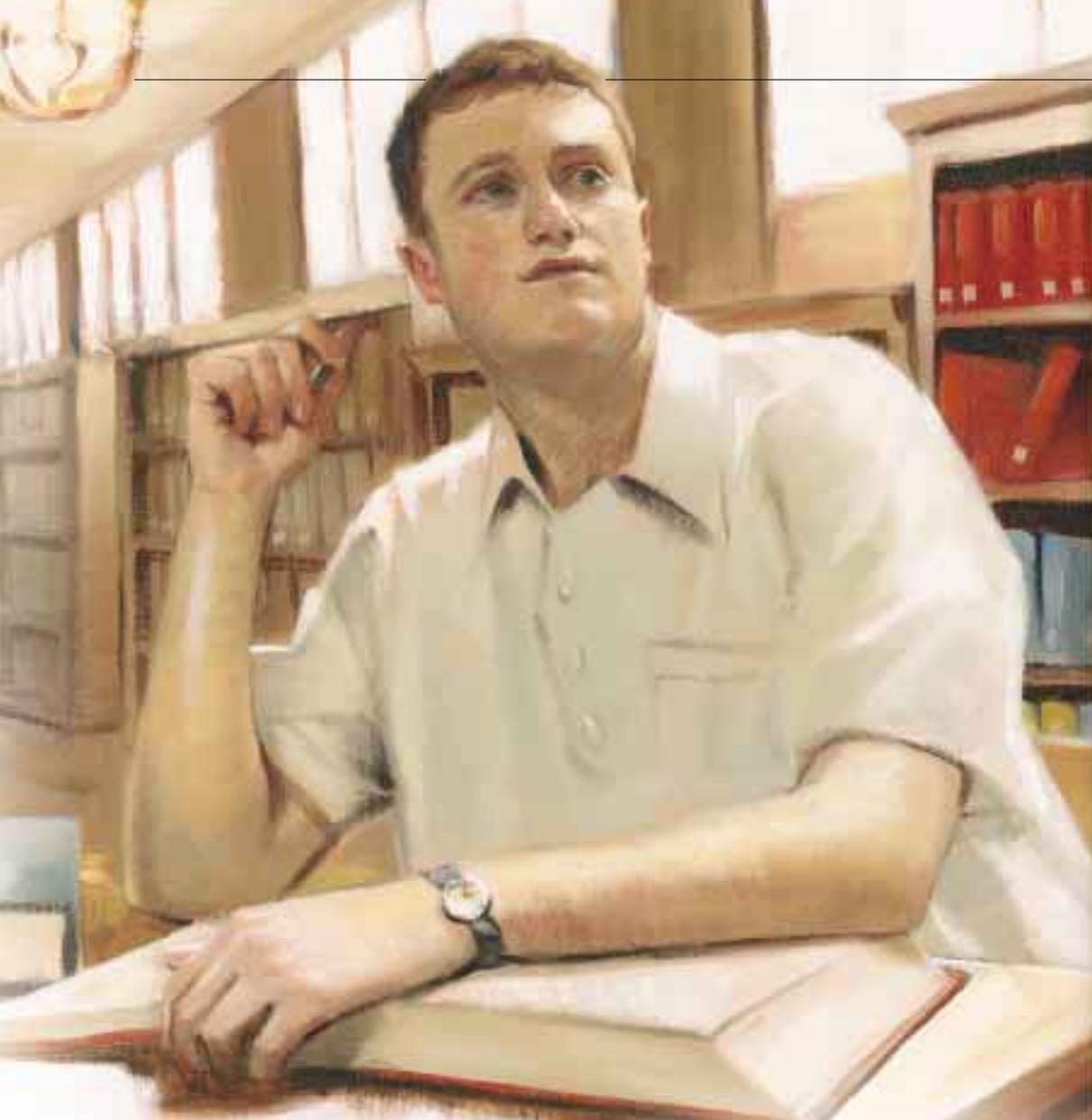
한참 후, 오클랜드 법대를 졸업하던 해에, 저는 학위 취득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한 번의 시험을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무척 바빴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저는 법대 도서관에 가서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치를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영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려 한다.”

저는 “그럴 리가 없어. 시험은 2시 반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무시하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도, 5분쯤 후에 영이 다시 속삭여 주었습니다. “시험이 방금 시작되었다.” 저는 세 번째 속삭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 시간표가 게시되어 있는 건물 지하로 뛰어내려 갔습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법, 시험 장소: B-28, 시간: 9:30” 저는



호외! 호외!

성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려면, 다음 성구들을
읽는다. 요한복음 14:26;
갈라디아서 5:22~23;
모사이야서 4:20; 5:2;
교리와 성약 6:15~16,
22~23; 9:8~9;
11:12~14.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두 명의 시험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오가 생겨 늦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3시간짜리 시험에서
40분이나 늦은 저를 시험장에 들어 보내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풀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시험 시간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속삭임을 무시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느낌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다시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아는
문제구나.” 저는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이
“시간이 다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답안지를
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후에, 저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았으며,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사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그 외 그와 비슷한 다른 경험들은
제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여러분이 귀기울이면 그분은 영을 보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



육신, 성스러운 선물

우리의 몸을 세상의 방법보다는 주님의
방법으로 대합시다.

다이앤 엘 스팅글러

여러분은 거울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몸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략 여성의 63%와 남성의 50%가 자신의 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후기 성도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

나는 심리학자로서의 직업을 통해 재능 있고 의로운 후기 성도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이 영화나 잡지에서 본 모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른 고객들은 외설물에 너무 현혹되어서 육체를 소비되거나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종종 그들은 결국에는 속임수와 뒷에 걸려 그들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심의 상실이 반드시 육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의 상실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세상은 외모가 개인의 가치와 매력을 결정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의 몸매가 더욱 완벽할수록 개인의 가치는 더 커지며,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기회도 더 커진다. 이상적인 몸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종종 비난을 받거나 무시되는 반면에 이상적인 몸을 가진 자들은 추앙되거나 부러움을 받거나 또는 권위를 갖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대하도록 의도하신 방법인가? 경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대해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보이심을 알 수 있다. 경전과 다른 계시들은 우리를 압박하는 세속적인 관념과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육신에 대한 비할 데 없는 진실을 알려 준다.

육신은 거룩하며 우리의 발전을 돕는다

육신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복음 진리는 육체를 갖는 것은 신성한 속성, 즉 육체가 없는 것보다 육체를 가짐으로써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원리이다. 우리의 종교는 사실상 하나님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몸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값진 진주에는 “자기 자신의 몸의 형상대로 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다.(모세서 6:8~9 참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육신을 얻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전세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육체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육체를 갖지 못한 것이 사탄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말했다.²

게다가 육신은 발전과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세에서 의롭게 선택했음을 증거한다. 육신은 신성을 향해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게 해주는 선천적인 힘이자 능력이다. 몸은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저 머리를 위해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며 영을 위한 육욕적인 고민거리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하고 강력한 영혼의 구성 요소로서, 이는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기]”(교리와 성약 88:15)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체와 육체의 진보적인 성질에 대하여 아는 특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엄청난 가능성을 이해하고 누리는 데 큰 유익이 된다.



육 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긴 완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육신은 성스러운 선물이다

육신에 대하여 경전이 가르쳐 주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선물로서 그것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우리 모두는 필멸의 지상 생활에서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부활하며 우리의 육신과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고린도전서 15:22 참조) 실제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완벽한” 몸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우리가 믿는 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둘 다를 이긴 완전한 몸-영이 함께하는 몸-과는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완벽한 또는 완전한 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경전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과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다루는 것을 경계하도록 경고해 준다. 엘마는 이렇게 물었다.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신 자를 너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아직도 고집하여 값비싼 옷을 입으며 너희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의 재물에

두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다른 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를 계속하려느냐”(엘마 5:53~54)

이러한 성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가르친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는 데 열중한다면, 여러분의 선물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몸을 올바르게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선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선물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볼 수 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대한 진지한 대답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3)

육신의 목적은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며, 봉사하고 선물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자주 육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육신을 경멸하는 것-자랑하거나 깔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것-은 선물을 거절하는 것에 해당된다.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 감사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신다.

육신에 대해 감사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종종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어떤 사람에게든 그러한 요구가 모델처럼 날씬하게 되고 싶어하는 것을 단념하는 일일 것이며,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꾸미는 습관과 값이 비싸거나 단정하지 못한 의복을 입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인 과식의 기쁨, 적당한 운동의 회피, 또는 다른 사람의 욕신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그만두는 일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육체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은 자유-허영, 유행, 질투, 피상적인 것, 자아 비난, 험담, 과식이나 소량만을 취함으로써 초래되는 질병, 육욕, 외설물, 해로운 물질에의 중독, 문신, 다른 많은 세상적인 부담과 압박의 형태의 학대로부터 자유-를 가져 오게 한다. 욕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하고, 발전하며 기쁨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몸은 성전이다

경전이 욕신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 또 다른 진리는 몸이 성전이라는 점이다.(고린도전서 6:19 참조) 성전은 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빛과 진리를 발한다.

주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택해 기름붓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사무엘은 이세의 여덟 명의 아들 중 하나인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외모로 판단하여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려 주시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라고 그에게 충고하셨다.

우리는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성전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건물들은 외관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장엄함과 약속들은 오직 성전 내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욕신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지만, 욕신의 귀중함은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과 우리 내부에서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인 욕신이 빛과 사랑 및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산하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엘마는 이렇게 물었다.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엘마서 5:14) 진리, 사랑, 그리고 소망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은 참 아름다움, 즉 최종적으로 보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참 아름다움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신성한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이며, 문화나 나이, 또는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욕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

사탄은 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욕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는

성 전들의
외관은
아름답지만,
성전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이다.



속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일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육신을 대한다면, 육신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환상을 알게 될 것이며 세상적인 관점과 관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육신에

우리를 혼동시키고 유혹하여 육신을 잘못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육신을 버리게 함으로써 우리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한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육신을 확대하는 관습이 모든 문화에서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영향들 사이에서 육신을 올바르게 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외모에만 몰두하거나 또는 자신의 육신에 대해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볼 수 있다. 참 뜻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힘과 도움이 경전과 성신 및 다른 수단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과 직면하는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모세서 2:31 참조)

여러분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욕 부진이나 병적 기아, 병적인 비만, 또는 해로운 물질의 중독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신적 건강이나 의학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신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오는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체와 관련된 세속적인 문제를 육체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또는 행동적이거나 간에 상관없이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 불평하고 경멸하도록 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통해 여러분의 육신에 관한 생각과 마음을 고쳐 주실 수 있다. 경전과

대한 이러한 원리에서 신앙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도록 도와 줄 것이다. ■

다이앤 엘 스팅글러는 유타 시터 힐스 스테이크 시터 힐스 제5와드의 회원이다.

주

1. AnnMarie Carroll 와 Diane L. Spangler, "A Comparison of Body Image Satisfaction among Latter-day Saint and Non-Latter-day Saint College-Age Stude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Mormon Counselors and Psychotherapists*, 2001년 가을, 6~18쪽 참조.
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1976년), 170쪽 참조.

부모를 위한 제언

다음의 제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체를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평가하신다고 가르친다.
- 자녀들이 육신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과 복음의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평하는 행동은 복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가르친다.
-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보할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몸을 지으셨다고 가르친다.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몸으로 무엇을 배우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질문한다.
- 자녀들에게 우리의 몸을 돌보고 목적인 배대로 몸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몸에 대한 감사함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미디어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영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도서관의 책을 보든지, 영화를 고르든지, 또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더블린 스테이크 클론델킨 와드의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01년], 17~21쪽 참조)

-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어떤 게임을 할지, 또는 어떤 책을 읽을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한다. 여러분이 받은 느낌을 따른다.
- 인터넷 사용 중에 외설물이나 원하지 않는 광고창이 뜨는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 부모의 허락을 얻어 컴퓨터를 여러분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개방된 장소에 둔다.
- 책에 대한 평을 확인하고 책을 사기 전에 책 표지를 읽어 본다. 명백하게 부적절한 책은 피한다.
- 여러분이 극장을 가거나 영화 비디오물을 빌릴 때 등급을 확실히 알고, 사전에 영화평에 대해서도 읽어 본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화를 관람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가게에서 부적절한 잡지의 표지를 보지 않는다. 그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구역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가지 않도록 다른 것에 집중한다.
- 여러분이 듣거나 따라 부르는 노랫말에 주의한다. 그 음악의 단어, 전하는 말, 음량, 또는 박자가 영을 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콤팩트 디스크(CD)를 구입하기 전에 등급을 확인한다.
- 밤에 텔레비전을 볼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프로그램은 주의한다.
- 만일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었다면, 영을 불러오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 한다.
-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우연히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채널을 제한하게 한다.
- 평판이 좋은 잡지나 신문에 실려 있을지라도 가치없는 기사는 피한다.
- 폭력적이거나 부도덕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을 멀리한다. 여러분이 사거나 하게 될 게임의 등급을 확인한다.
- 여러분이 좋지 않은 미디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즉시 끄거나 내려놓거나 걸어나온다.

의를 선택하라 ... 미디어

삽화: 앤들 로이터



어느 선교사의 소망

타파드즈와 탄자니

여덟 살 무렵의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린 내 마음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에 부풀어 있었다. 열네 살이 되자 나는 선교사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은 강해졌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사랑도 더 커졌다.

그러나 곧 어두운 구름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위협하리라고 누가 예견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짐바브웨의 퀘루에 있는 작은 집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 재물을 잃은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몇 가지 소유물은 비에 젖어서 모든 것이 썩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으며, 가족을 돌보아야 할 짐이 나의 할머니의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졌다.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의 농가로 이사를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지방의 시골 고등학교 상급 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다녀야 했다. 전기도 없어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해야 했다. 물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우물에서 길러와야 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예배당이 있는 곳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먼 지방에 있어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서로 가르칠 때는 종종 영을 느꼈다. 거의 희망이 없었지만 영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임재하는 순간에는 더 큰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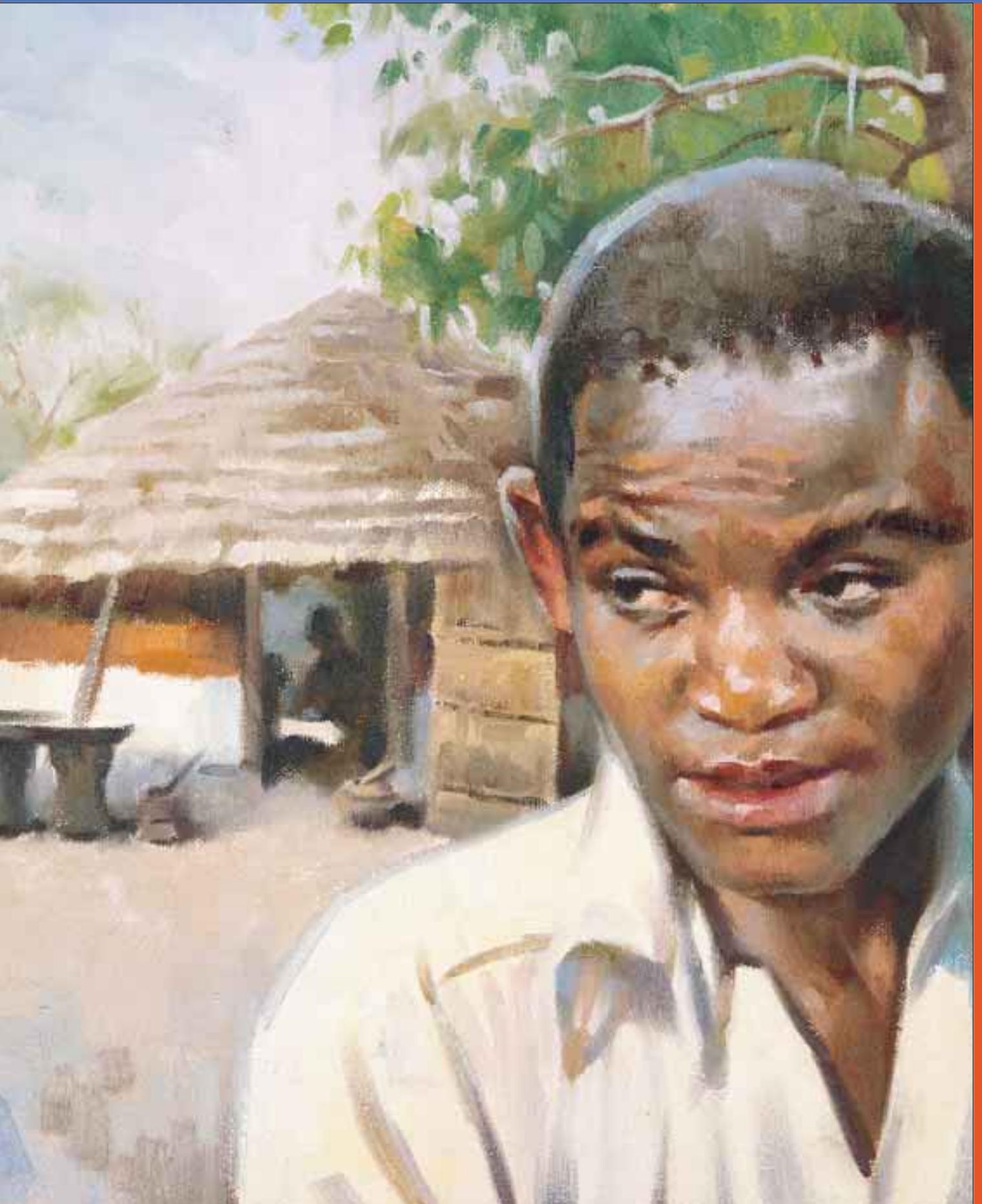
나는 여덟 살 때부터 선교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나의 희미한 소망은 깊은 시련을 맞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쇠퇴로 빠져 들어갔다. 방학 때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도시의 이모 집에 갈 경비마저 비싸졌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시골 지역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나는 퀘루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전에 내가 느꼈던 영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시골에 남아 있었으며, 그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치아와 건강 진단을 위해 내가 지불한 돈은 고생하고 있는 나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나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섬길 소망을 키워 온 것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다 아셨다. 선교사 부름이 2003년 2월에 왔다. 나는 남아프리카의 더반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혼자 힘으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선교 임지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4월에 시골로 내려갔다. 나의 가족이 잠자고 있던 작은 오두막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기대했던 기쁨은 그 곳에 없었다. 외할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올랐고 마음이 무거웠다. 외할머니는 내가 거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셨다.





다음날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다. 죽은 듯이 보이는 외할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뚜렷한 목소리로, 짐바브웨의 언어인 쇼나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파드즈와, 우팜베 즈바카나카(ufambe zvakana).” 안전한 여행을 하라는 말이었다. 그것이 외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

그 날 밤 외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되돌아갔고 슬픔과 비탄을 가득 안은 채 선교사 임지로 떠났다. 선교 임지로 떠나는 사람에게 보통으로 따르는 미소가 내게는 없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도 가족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선교 사업을 하기를 바란 이유는 나의 가족, 나의 국가,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 하늘은 가리워지지 않는다. 여러 나라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을지어다. 무릇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선을, 그리고 교회의 성결을 이루리라.”(교리와 성약 100:15)

선교 사업이 쉬웠거나 또는 귀환했을 때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위안을 받았다.(로마서 8:35~39참조)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엄숙히 간증한다. ■

타파드즈와 탄자니아는 짐바브웨 퀘루 지방부 므코바 제1지부 회원이다.

위대한 신앙의 표시



“교회의 선교 사업은 한 세기 이상의 봉사와 고난과 역경과 희생의 파노라마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더 완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의 할아버지인 히버 시 김볼과 브리검 영은 선교 지역으로 떠날

때, 궁핍하고 병든 가족을 남겨 두셨으며 그들 자신도 그들을 데려다 줄 마차에 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차가 출발하자 그들은 일어서서 ... 뒤에서 울고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위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교 사업의 결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 왔고, 수만 명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을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김볼 가족에게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영원토록 그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를 수천 명은 축복을 받았으며, 고난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년),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ward L. Kimball(1982년) 편집, 253쪽.



선교 사업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259)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엠 러셀 밸러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은 물론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할 만한, 인간의 영혼에 깊고 변함
없는 행복을 가져다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0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의 결과를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시도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오는 달콤하고 놀랄 만한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373~374쪽)

나는 복음 토론을 위해 어떻게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엘마서 17:11: “나아가 ... 내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지니,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자매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널리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심원한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흔히
여러분의 그러한 능력은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사랑과 친절의
행위들과 의로운 모범 속에서, 종종
일대일 관계 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1~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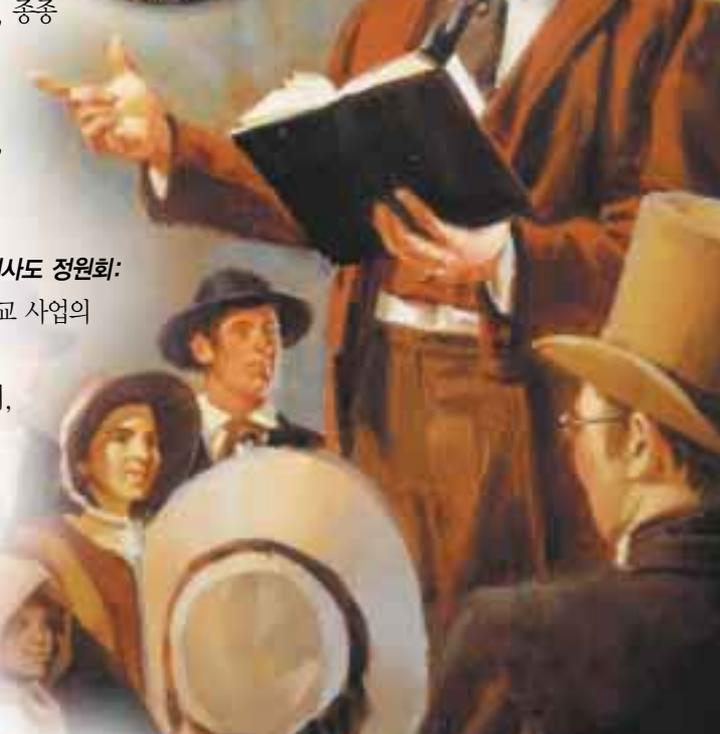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 사업의
경험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여러분이 원하는 선교 사업의
기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 16쪽)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억제와 두려움,
예상치 못한 장애물, 불확실성, 지속적인
방해, 잘못 가르쳐진 사람들—이러한
것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진리를 나누지 못합니다 ...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Bearing Record: Nothing
Compares to It”, in *Ye Shall Bear
Record of Me: Talks from the 2001
BYU Women’s Conference* [2002년],
21~22쪽) ■





야영지에서 구조됨

마리아 에스피노사 알베알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지만, 마지막에는 구조받아야 했다.

청 녀 야영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어느 해를 기억하고 있다. 달의 거울이라고 이름 지은 우리의 야영은 칠레의 중앙에 있는 산기슭에서 있었다.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우리의 기쁨과 사랑은 그곳의 자연미를 돋보이게 했다. 산을 보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와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아침에는 해를, 그리고 밤에는 별과 달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성한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해

주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평소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렸다.

그 주 동안에 우리의 간증은 우리 우정의 결속만큼 강해졌다. 우리는 많은 것, 즉 만들고, 요리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을 배웠다. 게다가 우리는 행복했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넷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다. 동틀 녘에 간증 모임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매우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이 경험을 간절히 바랐다. 간증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쓰신 편지를 받았다. 그것들을 읽는 동안 많은 청년들이 울었고 그러한 순간 내내 우리는 감사의 영을 느꼈다.

후에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 별들이 사라지고 산 위로 해가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모임이 끝나고 그 날 일정을 계속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무렵, 하늘이 흐려지더니 이슬비가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씨가 좋아져서 우리의 야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그분이 비를 계속 내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비는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우리는 천막을 거두고 모든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야영 지도자와 나는 폭포 옆으로 내려가서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사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평안과 확신을 느꼈다.

우리가 야영지로 돌아온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는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왔다. 그는 우리가 나흘 전에 야영지로 왔을 때 우리를 보았다고 했다. 이제 그가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도시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버스가 예정보다 일찍 와서 우리를 태우도록 하기 위해 전화 번호를 물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그는 떠났으며, 전화를 한 후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장거리를 운전해야 했지만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천사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이 친절한 남자를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모사이야서 9:18)

우리에게 이것은 근사하게 야영을 끝내는 방법이었다. ■

마리아 에스피노사 알베알은 칠레 지안 뉴블레 스테이크 안타르티카 칠레나 와드의 회원이다.

청녀 야영 멋지게 계획하기

야영지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배우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야영을 뜻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주제를 정하는 것인데, “경전 구절, 야영 명칭, 포어, 또는 복음 원리나 청년 가치관이나 야영 목적과 부합되는 구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청녀 야영 지도서 [2002년], 81쪽)

야영 지도서에 나오는 달성 증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하도록 돕는 활동을 계획한다.

- **봉사한다.** 최소한 아홉 개의 달성 증서 요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들은 “상대방과 복음에 대한 사랑 및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모사이야서 18:9) 결의를 강화시키게 될 실외 환경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야영 지도서, 1쪽)

- **영적인 경험을 한다.** 야영 지도서에서 최소한 19개의 달성 증서 요건은 청년들이 영을 구하도록 장려한다. “자연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경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여러분을 영감으로 고양시켜 줄 것이다.”(야영 지도서, 1쪽)

- **아내, 어머니, 가정 주부 및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한다.** 최소한 42개의 달성 증서 요건은 청년들이 장래에 맡게 될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 귀가하는”(야영 지도서, 7쪽) 청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한다.** 최소한 12개의 달성 증서 요건은 청년들이 일과 육체적인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며, 16개의 요건은 청년들이 지도력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실제로 요구되는 사항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야영 지도서, 52쪽)





왜 역경을 겪는가?



디 알렌 앤더슨 장로

지역 칠십인
아시아 지역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 제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불쾌하고 힘든, 고통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과 종종 마주치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경을 겪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정하지 못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베냐민 왕은 죄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모사이야서 4:29) 마찬가지로 역경도 이 지상에서 겪어야 할 삶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밖에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유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없이는, 구원의 계획과 전세와 내세의 존재에 대한 진실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처할 효과적인 방도 또한 없습니다.

징계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일들에서 비롯되는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의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하는 시기에 그들이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집에서 추방당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범법의 결과로 나누는 그들이 겪은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용납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01:2)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마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할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도다.”(5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선택을



에 자매는 물질면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 못지 않게 평화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 모습과 장래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겐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맞서서 우리의 책임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참을성 있게 감수하고 배우며 의로움으로 발전하는 자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히브리서 12:6) 채찍질은 고통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7, 11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우리는 또한 인생의 다른 역경들도 만나는데 이 역경들은

변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인상은 제게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에 저는 선교사들과 그녀의 스테이크 회장 및 선교부 회장에게 그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녀를 존경할 더 많은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타이난 스테이크의 예 후이 후와 자매입니다. 저는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타이난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집회소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에서 눈에 띄 정도로 그녀를 감싸고 있던 행복감에 이끌렸습니다. 우리가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간증과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빛나는 영을 느끼고, 제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한 번의 만남에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물질면에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 못지 않게 평화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그래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아냈습니다.

독신 회원으로서 그녀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컸지만 재정적으로 부모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임을 알고

큰 박해를 당하는 동안 미주리 주의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일을 하고 그 수입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선교사들이 그녀와 가족을 방문했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겪다가, 생계 수단이 거의 없는 예 자매와 세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자녀 세 명 모두는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두 명은 타이완에서 봉사했고 한 명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은 귀환 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저의 요청에 따라 예 자매와 얘기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따른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에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해요. 만약 누군가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도록 인도해 주셔요.”

선교사들은 집회소 주변을 정리하고 나뭇가지를 손질하고 있는 예 자매를 볼 때 종종 다정하게 “예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리버티 감옥에서 도움을
간청할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우리의 역경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모든 선교사들의 “두 번째 엄마”이며, 예 자매도 그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원리

타이난 집회소 마당에서 손에 정원용 도구를 들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행복한 예 자매님의 모습은 제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교육이나 물질적인 혜택의 기회도 없었고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듭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욥기 2:9)는 자들과 예 자매님을 구별짓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구세주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분들은 깊은 지혜와 크신 안목으로 우리가 잘 대처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지 않을 어떤 시련도 겪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받으신 권고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목록을 열거하십니다. 그런 뒤에 위안과 권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2:7~9)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

이 지상 생활의 시련에 대처함에 있어 신앙과 인내
이상으로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또 다른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 자매가 시련에서 헤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게끔 해 준 열쇠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통을 겪기 바로 직전, 자신이 몇 시간 이내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맞게 될 것을 아셨던 그때에 이
열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다락방에서 그분의
사도들과 만나 그들에게 성스러운 의식과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절박한 시간에 그분은 위안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자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신 다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5, 14~15, 17)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 자매가 찾았던
비밀이며,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인내는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봉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모범을 따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도록
합시다. ■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참으로 훌륭한 권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심한 역경과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며 역경과 슬픔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분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현명한 권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인내와 신앙으로 고난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여러 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서 고통을 겪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의
시련을 줄여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주님은 또한 미주리 주에서 받은 박해에 관한 한 계시에서
선지자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관하여는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



가족 강화

사랑하고 보살필 엄숙한 책임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¹

사랑과 단합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단지 낭만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락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 곳에는



약점이나 실수를 눈감아 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²라고 말씀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은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아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³라고 말씀했다.

결혼 생활에서 단합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노력 없이 오지도 않는다. 낭만적인 사랑은 결혼의 혼약 안에서 성숙되어야 하며 결혼 생활의 영적인 조화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결혼 상담자인 빅터 비 클라인은 “성공적인 부부가 갖는



단합을 누리고자 한다면 엄청난 끈기와 오래 참음과 이 생에서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은 놀라운 은사이지만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충만히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⁴라고 설명한다.

다른 아무

1831년,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다른 아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삶에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게 되며, 어떠한 사회적, 직업적, 정치적 생활이나 관심 또는 사람이나 일도 결코 배우자보다 중요할 수는 없게 됩니다.”⁵ 결혼 관계 앞에 자녀, 친구, 일, 취미, 교회 부름을 두는 것은 “다른 아무”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사탄은 결혼한 배우자들을 이간하여 문제를 야기시킬 결심을 한다. 사탄이 만약 어느 한 배우자에게 영원토록 중요한 이 관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가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고양시키며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보살핌으로 돌보아야 한다.

줄타기

헌신적인 배우자가 되고, 동시에 애정이 깃든 충실한 부모가 되기로 민감한 줄타기와도 같다. 부모는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교리와 성약 93:40)는 신성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시간이 걸리며 때때로 정서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부모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혼 관계를 대신하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과 교회 지도자들은 배우자들이 가족의 우선 순위를 지키도록 돕기 위해 노틀담 대학교의 데오도르 헤스버그 총장이 한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인용해 왔다.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자녀들을 고쳐주기
보다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그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달성했을 때에도 칭찬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입니다.”⁶ 애정이 깃든 결혼 관계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다른 관심사가 그 중요한 관계가 가리워질 때 종종 사라져버리는 안정감을 누린다.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이란 쌍방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⁷

자녀들에겐 사랑과 칭찬이 필요함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세심한 관심이지, 그들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의 공감과 이해심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무관심한 채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가르침과 사랑과 신뢰만이 십대의 자녀들을 문자 그대로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⁸ 그는 또 이렇게 권고했다. “자녀들을 고쳐주기보다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 자녀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달성했을 때에도 칭찬하십시오. 매일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격려하십시오.”⁹

“저의 청원은 어린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수가 고독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밝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 그들은 친절과 격려와 애정이 필요합니다. 집값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은 구원의 환경이 될 사랑이 가득 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¹⁰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8쪽.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325쪽.
3.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89쪽.
4. “Healing Wounds in Marriage”, *Ensign*, 1993년 7월호, 16쪽.
5.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1982년), 311쪽,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37쪽.
6.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자”,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20쪽.
7. *성도의 빛*, 1992년 11월호, 4쪽.
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1988년), 497쪽.
9. “The Honored Place of Women”, *Ensign*, 1981년 11월호, 107쪽.
10.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4쪽.

감리 감독단



신권 및 그 목적에 대한 여섯 번째 연재 기사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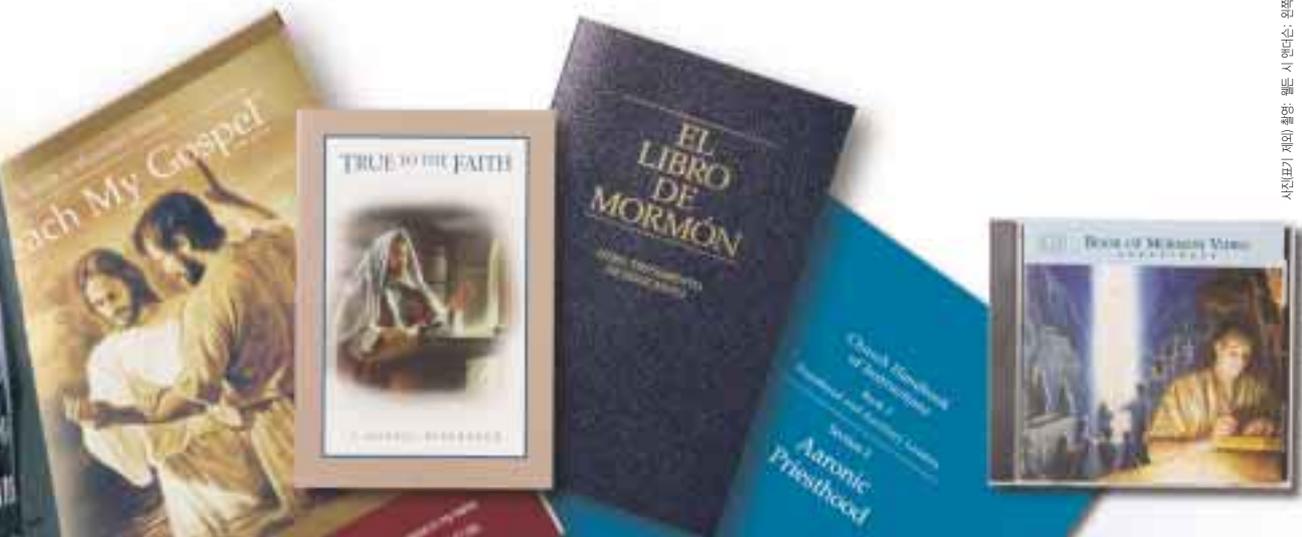
일마 전에 나는 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고 있었다. 그 스테이크는 조직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스테이크로, 이 대회는 지방부에서 스테이크로 승격된 뒤 처음 갖는 대회였다. 나는 새로 부름받은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을 끝내기 전에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감리 감독단이 무엇입니까?”였다. 그는 덧붙여서 “저는 감독님께서 우리 대회를 감리할 것이라는 서신을 받기 전까지는 감리 감독단이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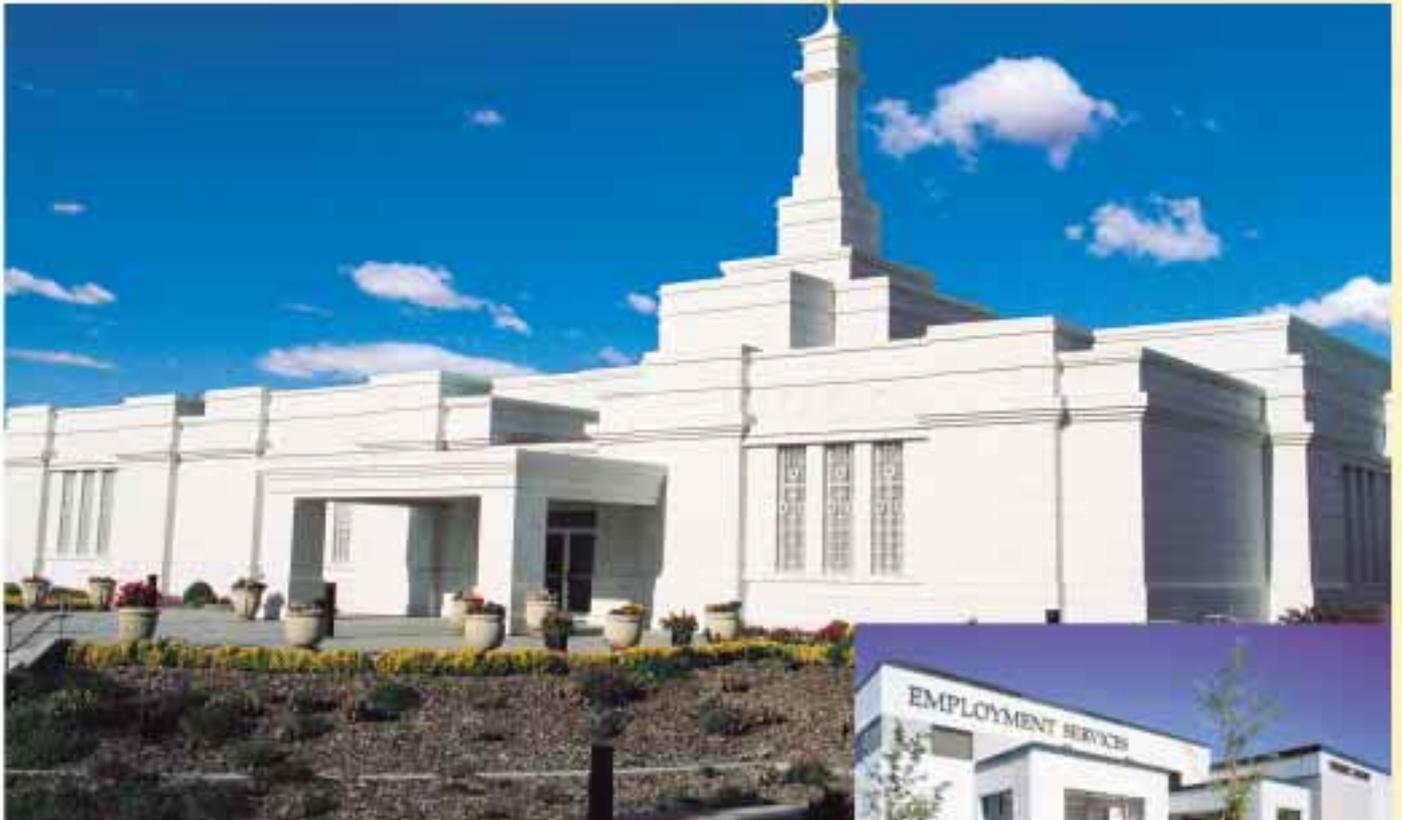
나는 이 스테이크 회장에게 감리 감독단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보고하며,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감리 감독단이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교회의 아론 신권 회장단으로서 봉사하며(교리와 성약 107:15 참조) 동시에 교회의 속세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고(교리와 성약 107:68 참조) 설명했다.

아론 신권 회장단

교회의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아론 신권 회장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그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아 그 열쇠를 행사한다.

버튼 감독은 신권 집행 평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이 평의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다른 총관리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평의회는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부터 제언을 듣고 평가하며 청남 프로그램에 관한 지시와 조언을 준다. 이런 방법으로 감리 감독단은 교회의 본부 청남 회장단의 사업 및





감리 감독단은 아론 신권 회장단으로 봉사하며 또한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얻도록 세상적인 것인 속세에 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일을 돕는다. 왼쪽 위: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제1보좌;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키스 비 맥멀린 감독, 제2보좌.

청년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보고 받게 된다.

속세에 관한 일의 집행

감리 감독단은 또한 교회의 속세에 관한 일이 집행되는 경로가 된다. 이 속세에 관한 일 가운데는 십일조, 금식 현금, 기록, 지출, 재정 운영, 교회 복지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과 같은 일들이 포함된다. 감리 감독단은 교회 건물, 회원 기록, 성전복 제작, 번역, 출판, 건축 및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 배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자료들에는 경전, 교육 과정 자료, 포스터, DVD, 비디오, 교육 자료 및 교회 잡지와 같은 교회의 영적인 목적을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감리 감독단은 모두 총관리 역원이며, 그 자격으로 제일회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가 요청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지명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리 감독단이 책임지는 속세에 관한 일이



교회의 사업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 나의 계명들은 영적인 까닭이니라”(34~35절)

주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시지 않는다. 교회의 속세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다. 물문경이 인쇄된 책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느 다른 책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따라서 물문경의 번역, 인쇄, 제본 및 배부 등의 “속세에 관한 일”들은 충만한 영적인 일들과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감리 감독단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세상적인 것이나 속세에 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창고에 대해 말씀하시는 교리와 성약 78편은 참으로 훌륭한 성구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 창고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 편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 사이의 조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나의 백성의 가난한 자를 위한 창고의 업무를 조정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나의 백성의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받아들인 대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한 영구적이고도 영원한 기구와 제도를 삼기 위한 것이니”(3~4절)

감리 감독단으로서 나는 신권의 외투와 예언과 계시의 영이 주님의 사업의 이 속세에 관한 부분 속에 생생히 살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



태풍과 시련

퍼시벌 토미

우 리 가족은 남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뿐입니다. 동생과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지원할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저축해야 했습니다.

많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지방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큰 야자수가 우리 집으로 쓰러져 그 작은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나는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저축한 선교사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나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야 했고 그래서 다시 나의 선교사 기금을 써버렸습니다.

선교사 기금 저축에 대해 실망해 있던 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 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제3니파이 13:33) 그 구절은 내게 많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신앙과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지금 둘 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퍼시벌 토미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필리핀 지방부 룩사스 지부의 회원이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루이스 우발도 파디아 오르티스

어 느 날 학교 수업 중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 잘못 기록된 내용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라는 성구가 기억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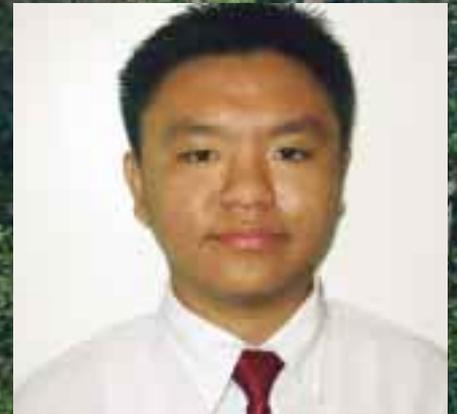
선생님은 나에게 읽으라고 재촉하셨지만, 그 문장에는 거짓이 많아 읽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기회를 가졌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난 뒤에 따뜻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성구 하나때문에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루이스 우발도 파디아 오르티스는 펠콘 베네수엘라 지방부 코로 제2지부의 회원이다.

신화나 디 맥기렌 물리

말레이시아의 십대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거웨이 싱, 티안 밉, 라우 카 예 에이미, 고웨이 쉑, 토렌 비 파슨즈, 애리아나 데비어, 지부 회장인 스티븐 시 파슨즈와 페낭 지부의 십대들.





말레이시아의

젊은 개척자들

헨리와 제닐 콜

처음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처음이란 바로 앞의 경쟁자를 앞질러 결승선을 넘는 1등을 의미하거나 가족 중에서 첫 번째 자녀가 되거나, 선교사로 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의 삶은 또 다른 종류의 처음, 즉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채워져 왔다.

말레이시아 이포 지방부는 2003년에 조직되었다. 그 이후로 이 곳의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청소년 대회를 계획하고 참여했으며 지방부의 첫 번째 세미나리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포 말레이시아 지방부에는 세 개의 지부만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교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이웃들과 간증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 말레이시아에 첫 번째 와드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다.

“항상 무엇에서나 처음이 되는 사람들은 없을

이 개척자들은 아직 십대이지만 조국에서 삶의 새로운 길을 닦고 있다.

사진: 촬영표기 제외, 헨리 및 제닐 콜과 존트, 플로라이 로버트슨, 안쪽 및 오른쪽 배경 사진 촬영: 게티 이미지스

말레이시아

동남 아시아의 한 나라인 말레이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무성한 녹색의 정글로 덮여 있다. 말레이시아 이포 지방부는 타이랜드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서쪽에 있다. 서 말레이시아와 동 말레이시아는 400마일(650킬로미터)이 넘는 바다로 갈라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수마트라 섬의 보호를 받아 2004년 12월의 광범위한 해일 피해를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60개가 넘는 민족의 안식처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등 최소한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4개 내지 5개 언어를 구사한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곳의 개척자들이예요.”라고 1998년에 교회에 들어온 16세의 멜빈더 싱허가 말한다.

청소년 대회에서 서로 강화되어

지난해의 청소년 대회는 십대들이 처음으로 야구를 배우면서 흥분의 함성으로 고조된 대회였다.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 중 두세 명만이 경기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경기 규칙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다.

“여기서는 주로 축구와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야구를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라고 멜빈더가 말한다.

야구 외에도 청소년 대회는 다른 재미있는 게임과 활동으로 채워졌다. 비록 청소년들이 활동들을 즐기기는 했지만 그런 경험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앎으로써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말한다.

장미반원인 애리애나 데비어는 이렇게 말한다. “나와 똑같은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다니 정말 굉장했어요. 그 아이들도 나와 같은 시련과 유혹을 받고 있지만 신앙으로 굳건히 견디고 있어요. 이제 나는 이 세상 어떤 곳을 가든지 복음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졸업생들이 가르치는 세미나리

최근에 청소년들이 복음 생활에서 또 하나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지방부의 첫 번째 세미나리 졸업식에 참석한 것이었다. 세 명의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인 켈빈 어넨드 쿠마, 오운 렉 텐 어네스트 및 하미쉬 스티븐 파슨스가 세미나리 졸업장을 받았다.

1999년에 침례 받은 켈빈은 교회 회원이 된 후 4년 동안 세미나리에 다녔다. 그는 세미나리에서

얻은 지식으로 간증이 커졌다고 말한다. 켈빈은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를 졸업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세미나리는 제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었으며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리에서 배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전에서 결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켈빈을 비롯한 다른 졸업생들의 모범이 그들로 하여금 세미나리를 충실히 다니도록 고무시켜 준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십대들은 여가 시간 대부분을 공부와 숙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매주 6일을 학교에 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개인 교습도 받는다.

이포 제2지구 장미반원 자스린더 카우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세미나리에 다니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한다.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제가 미쳤다고 낙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세미나리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도움이 되죠. 학교에 가면 정신이 더욱 맑아져서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멜빈더 싱허도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학교



왼쪽: 집회소 마당에서, 에스메 탄, 라우 카예 에이미 및 윤 키친 위쪽: 이포 제2지부의 청소년들. 상단: 서 말레이시아 이포의 변화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동안 두 번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 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생이 되며, 그들이 추구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이 해가 멜빈더에게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세미나리를 다니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결정을 한 자신을 축복하셔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도와 주실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멜빈더는 “세미나리에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라고 말한다.

개척자들처럼

1980년 이후에야 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들이 계속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곳에는 아직 회원들이 많지 않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는 12,015명에 한 명 꼴, 즉 인구의 0.01퍼센트만이 교회에 속해 있다. 초기 개척자들처럼 말레이시아의 청년 청년들은 그들의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눔으로써 교회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간증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운 렉 텐 어네스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지만, 이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17세의 어네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성찬식에서 처음으로 저의 간증을 전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저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네스트를 비롯해서 이포 지방부의 청소년들은 간증을 나눌 때 간증이 자란다는 것을 안다. 이포 제2 지부에는 대략 열 명의 청년과 열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가능한 한 간증 모임 때마다 자신들의 간증을 나눈다. 청년 회장인 리우 시우 링 크리스는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말한다.

서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은 복음의 많은 부분들을 처음 경험하는 축복을 받아 왔다. 청소년 대회 및 세미나리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변치 않는 간증을 발전시키고 온 말레이시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

헨리와 제널 콜은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레이크스 스테이크 스페니쉬 힐스 와드의 회원이다. 그들은 싱가포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는가?

마리나 티모피바

나는 1993년 12월 5일에 민스크 시에서 침례 받았다. 그 당시에 민스크는 벨로루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부가 있는 유일한 도시였다. 나는 그 곳의 예배 모임에 참석했으나, 40마일(70km) 떨어진 보리소프에 살고 있었다. 나는 열일곱 살이었고 가족들은 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에 내가 겪었던 시련으로 인해, 진리에 대한 내 신앙과 간증은 강화되었다. 나는 매우 운 좋게도 두 번이나 독일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는 때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1996년에 나는 지금의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고르는 회복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1997년 2월 23일에 침례를 받았다. 3월 1일에 우리는 결혼했다. 성전 사업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기에, 나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빨리 성전에 가고 싶었다.

1997년 9월, 우리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했다. 그 곳에서 이고르는 대학을 다녔다. 우리 딸 벨리도 그 곳에서 태어났다. 이고르가

벨리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임신을 했다. 내게는 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이고르는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일을 세 가지나 하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다. 이고르의 부모님은 때때로 돈과 음식을 보내 도움을 주었지만, 힘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는 사실상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다. 1998년 8월, 환율이 급상승 한 후, 우리는 벨로루시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둘째 딸, 엘레나는 1999년 1월 6일 민스크에서 태어났다. 이고르는 그 때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 받은 날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날이었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성전에 갈 만큼 충분한 돈은 없었다. 그러나 조금씩 저축을 했고, 2000년 8월 말에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갔다. 카이세르슬라우테른에는 이고르의 친척이 있었고 우리는 그 집에 머물렀다.

9월 2일 아침 일찍,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성전을 향해 떠났다. 그 여행은 매우 피곤했고 두 번씩 차를 갈아타야 했지만, 우리는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성전 봉사자들, 성전 회장 또한 우리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동안 우리 딸들을 돌보아 준 자매님들께 감사한다.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우리가 그 곳에서 경험한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좋은 느낌이었다.

엔다우먼트 의식이 끝나고, 우리는 인봉실로 갔다. 인봉실에서는 열예나가 이미 울고 있었다.(아이가 낮잠을 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울음 소리 때문에 나는 인봉 의식 내용을 거의 들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성전에 다시 갈 수 있었다. 2001년 2월에 민스크로부터 한 우리의 회원들이 프라이베르크에 갔다. 나는 우리 가족의 인봉 의식 때 그 내용을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인봉 의식에 참석하고 싶었다. 이고르와 함께 초대 받았을 때 매우 감사했다.

우리에게는 현재 로버트라는 아들이 있으며, 가족이 함께 민스크 제2지부(벨로루시에서는 민스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두 번째 종교 공동체로 불린다.)에 참석한다. 우리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시련들에 매우 감사한다.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오직 좋은 것만을 원하신다. 다른 어느 누구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구멍 조끼가 우리가 강물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조끼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실 것이다. ■

마리나 티모페바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선교부 민스크 제2지부의 회원이다.

우리에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담 엔 아 퀴

캐 나다 위니페그 선교부의 선교사로서, 동반자와 나는 서스캐처원 프린스 앨버트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나는 하와이의 라이에에 있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 가까운 곳에서 자랐다. 동반자인 라모르 장로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었다. 멀리 고향에 있는 가족과 와드 회원들은 우리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매달 받는 기금이 때때로 늦게 도착하곤 했다. 이 경험도 그런 경우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어느 달 초에, 나는 수표를 받았는데 라모르 장로의 돈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다. 보통 때처럼, 집세를 낼 때가 되었고 찬장은 텅 비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내 돈으로 집세를 낼지 음식을

시아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집세를 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모르 장로의 돈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파트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었고, 냉동 혼합 야채 반 봉지와 냉장고에 얼어붙어서 꽤 힘을 들여야 뜯어 낼 수 있는 성에 낀 수프용 뼈가 남았을 뿐이었다. 이 재료들로 나는 야채 수프를 끓였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했다.

다음날 우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길은 끝이 없어 보였고, 아무도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굶주림으로 인한 복통이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는 둘 다 음식을 먹지 못해 현기증이 났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우리는 길 끝

공원에서 벤치를 발견하고는 앉아서 힘이 생기기를 기다렸다. 내 동반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고파요.” 그 곳에 앉아 있는 동안 그가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다. 나는 그보다 두 배나 체격이 컸다. 나는 한동안 더 견딜 수 있었지만 나는 그가 무언가 먹지 않는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선임 동반자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공원 건너편을 보니 다섯 집 정도가 있는 작은 동네가 있었다. 우리가 방금 전도를 마친 긴 거리와 이어진 동네였다. 나는 동반자를 돌아보며 “갑시다. 가서 이 동네 전도를 마칩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집으로 가지요.” 우리는 그 동네만 마치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첫 번째 집을 지나갈 때, 한 부부가 현관 앞에서 그들의 차를 손보고 있었다. “오늘은 안 됩니다.”라는 소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집으로 갔다. 다음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집 안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미소를 띤 중년의 여성이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들어오세요. 배가 고프셨으면 좋겠네요.”

머뭇거리며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우리를 주방으로 데려갔고 그 곳에는 이미 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힘 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내 동반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고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

서전 건축 현장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교회 건물들 중 하나를 막 떠나려고 할 때,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고 곧 모로나이 상이 성전 탑 꼭대기에 올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행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들과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아내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많은 느낌들이 밀려왔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나는 도시의 반대편 끝까지 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했다.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곳에 도착했다.

지난 며칠 간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약간 불었다. 그러나 그 날 오후 하늘은 맑고 평온하고 푸르렀으며 하늘의 축복처럼 햇빛이 우리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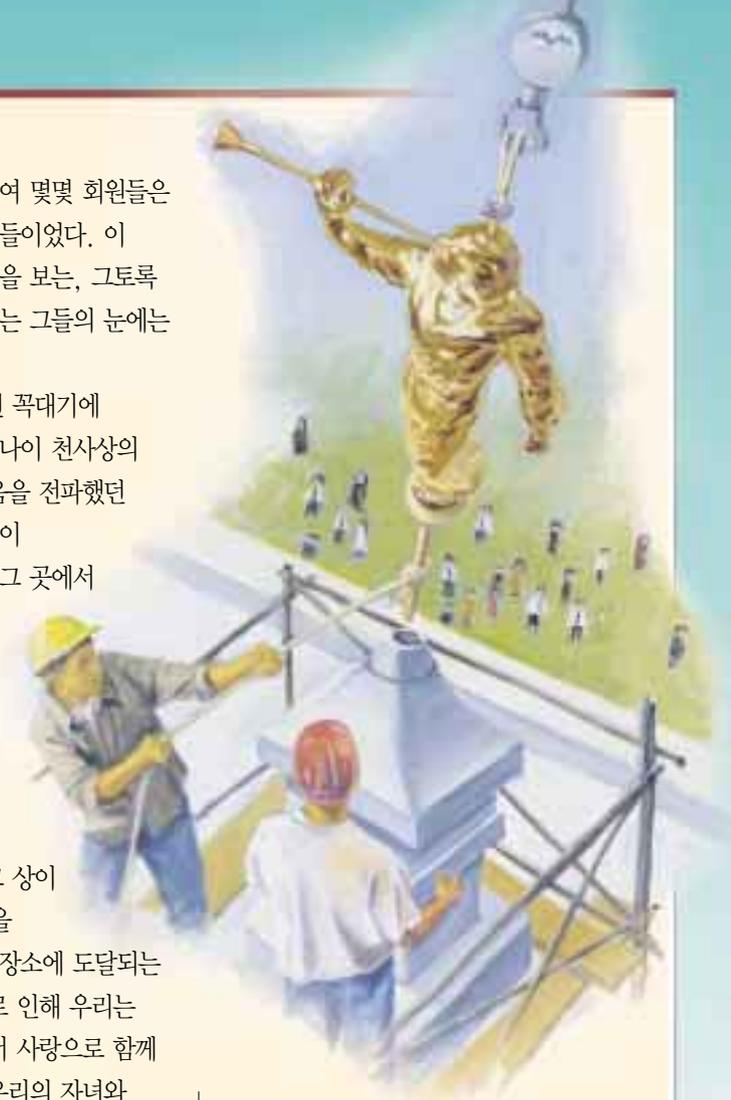
우리가 도착하니 우루과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다른 몇몇 회원들도 와

있었다. 장모님을 포함하여 몇몇 회원들은 우리 나라 교회의 개척자들이었다. 이 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는, 그토록 기다려 온 축복을 감상하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하늘을 날아 올라 성전 꼭대기에 안착한 듯이 보이는 모로나이 천사상의 빛나는 광채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친 희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고 전진하는 데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한 나라의 문이 열렸음을 세상에 선포했다.

우리는 끈고 웅대한 그 상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정된 장소에 도달되는 것을 보았다. 이 성전으로 인해 우리는 바로 이 곳 우리 나라에서 사랑으로 함께 인봉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 나라에 축복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2001년 3월 성전 헌납 전후에,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도 이 거룩한 집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9월의 그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 놓이는 것을 목격하도록 허락 받은 데 대한 감사가 넘쳐 흘렀다.

■ 프레디 더블류 카레노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동 스테이크 부세오 와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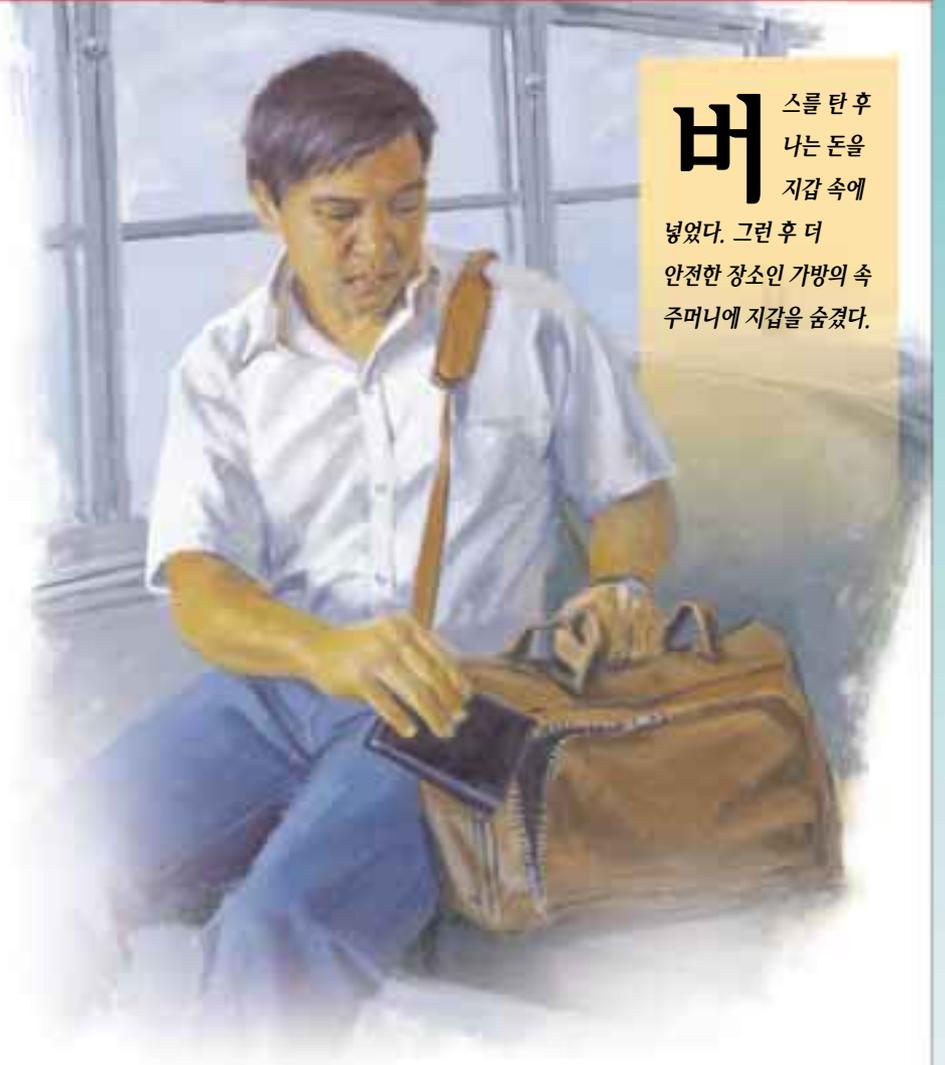
앉았고 그녀는 분주히 움직이며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왕들을 위한 만찬을 기대하며 나는 목이 메었다. 아마도 그녀가 마침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는 쫓겨날지도 모른다.

식탁에 포크 찔때지 고기 음식의 일종)과, 메시드 포테이토(으깬 감자 요리), 그레이비(겉쪽한 육수)와 다른 음식들이 가득 차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이 모든 음식들을

요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올 손님이 없었고 나는 혼자 살거든요. 당신들이 들려 주어서 정말 기뻐요. 식사 안 하셨죠? 그렇죠?”

버 스텝을 탄 후
나는 돈을
지갑 속에

넣었다. 그런 후 더
안전한 장소인 가방의 속
주머니에 지갑을 숨겼다.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내가 말했다.

“물론 선교사들이잖아요. 맞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니 드시기 전에 음식 축복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음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렸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곤궁한 때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식사보다 더 훌륭한 식사를 했던 기억을 할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

아담 앤 아 퀴엔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파라다이스 스테이크 빌라 보니타 와드의 회원이다.

사라진 지갑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르시오스

나는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주님께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직장에서 봉급을 받았을 때, 나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몇 가지 공과금을 내고 당시 첫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아내를 돕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탄 후 나는 돈을 지갑 속에 넣었다. 그런 후 더 안전한 장소인 가방의 속 주머니에 지갑을 숨겼다. 집에 돌아와 지갑을 찾던 나는 매우 놀랐다. 지갑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것은 2주일치 봉급 전체였고,

그 돈이 없다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었다.

나는 살살이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집까지 타고 왔던 버스에 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지갑은 찾을 수 없었다.

얼마 후 나는 매우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를 도와 주시도록 부탁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완전한 십일조를 냈으며, 이제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주님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셨다.

그 날 밤 늦게 감독님이 찾아오셨고, 내게 주민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있지만 그 날 지갑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지갑을 하나 보이며 그것이 내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지갑이 내 것이라는 것과 모든 돈이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독님은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친구가 그녀의 집 밖에서 그 지갑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갑 안에 있는 성전 추천서를 보고, 지갑을 그에게로 가져왔다. 그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내가 충실한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

엑토르 카스테야노스 투르시오스는 파테말라 아마티틀란 스테이크 아마티틀란 와드의 회원이다.

알고 계십니까?

7월에 일어난 일

1775년 7월 8일: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가 뉴 햄프셔 길섬에서 태어났다.

1804년 7월 10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이자 첫 번째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에머

헤일 스미스가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서 태어났다.

1912년 7월 8일: 후기 성도 중에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앨마 리차즈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땀다.

1920년 7월 31일: 교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이 유타 주 델타에서 태어났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여러분이 정원회나 반에서 맡은 임무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구세주의 지도력은 이기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년)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뒤로 하고, 의무적인 부름을 초월하여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한 요구들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력의 완벽한 모범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토록 완벽하게 추구하고 행하신 원리들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지도자”, 성도의 빛, 1983년 8월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본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 스테이크 메이트랜드 와드에 다니는 암몬 아빗슨과 부르크 노블은 일본 쿠시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어린이 정상 회담에 오스트레일리아 포트 스티븐즈의 대표로 참석했다. 주제는 “자연 환경과 우리의 미래”였다.

그 모임에서 있었던 발표에 대해 열두 살인 암몬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가 즐기도록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매우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언어, 문화에 대해 생각하며 암몬은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열다섯 살인 부르크는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험이 또한 복음에 대한 그녀의 간증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개척자들에게 경의를 표함

“고결성, 단결, 협동, 단합, 비이기심, 희생 그리고 순종 등은 이러한 덕성들이 개척자들의 행동을 이끌었던 초기나, 오늘날 모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개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행위의 바탕이 되었던 영원한 원리들을 존중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진리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기에 앞서, 돌아가신 분들을 참으로 존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대의는 바로 선조들이 섬겼으며 우리들이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증하며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이 품은 참된 신앙에 충실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척자들을 따름”,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74쪽.



봉사할 준비

리아호나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가정의 밤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제가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도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와드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염려해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게도, 2004년 3월호 리아호나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됨”과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라는 훌륭한 두 개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이 미래의 선교사들이 봉사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영감 어린 잡지가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아마릴도 마틴스, 브라질 디아테마 스테이크, 파르케 도로테이아 와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2003년 10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본부 청년 회장 수잔 터블류 태너 자매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어려운 상황을 피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라고 자문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진정 사랑하시며 제 신앙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다시금 확신을 줍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저의 시간표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크리스핀 미타고 쿠발라,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은갈리에마 스테이크 빈자 와드

불평하지 말라

저는 제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때 2004년 8월호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이 하신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불평하지 말”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즉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제 삶에서 불행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벨레 시 다쿠다그, 필리핀 바콜로드 북 스테이크 바타 와드

간증을 강화시키는 리아호나

우리는 리아호나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리아호나로 인해 우리는 매달 우리를 복음에 연결해 주는 끈을 강화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리아호나는 교회,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증가시킵니다. 그 곳에 실린 기사, 뉴스, 사진, 말씀,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까지도 우리가 오래 전에 얻은 간증을 새롭게 해 줍니다.

카소를라 가족, 스페인 그라나다 스테이크 말라가 제3와드

기사 모집

식량 비축이라는 주제에 관한 기사, 경험, 제언 및 성공적인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일 년치 식량을 비축하라는 권고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권고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축복 받았습니까? 다음 주소로 기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ood Storage,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 – liahona – 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그리고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2005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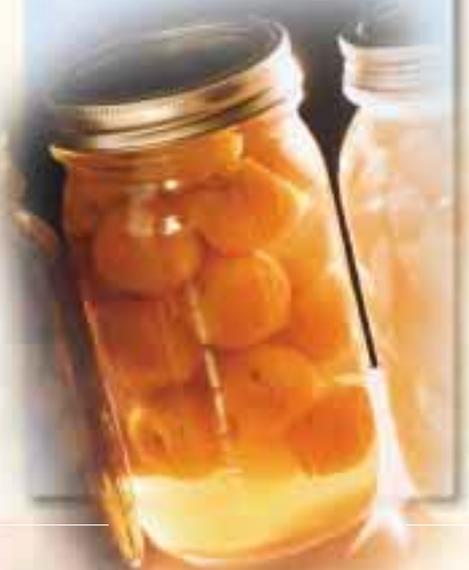


사진 촬영: 디지털 스텝 앤 포토티크

산 위에 있는 동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저는 워싱턴 성전 헌납식 때의 특별한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성전의 영접자로서 저는 며칠 동안 성전 입구에 서서 그 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특별한 손님들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 영부인, 대법원 판사, 국회 상하 의원들, 각국의 대사, 성직자, 교육자 그리고 재계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찬사와 경의를 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은 성전을 떠날 때 “저에게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니다. ... 저희들은 모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 디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숲으로 덮인 언덕 위에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의 반짝이는 첨탑을 경이롭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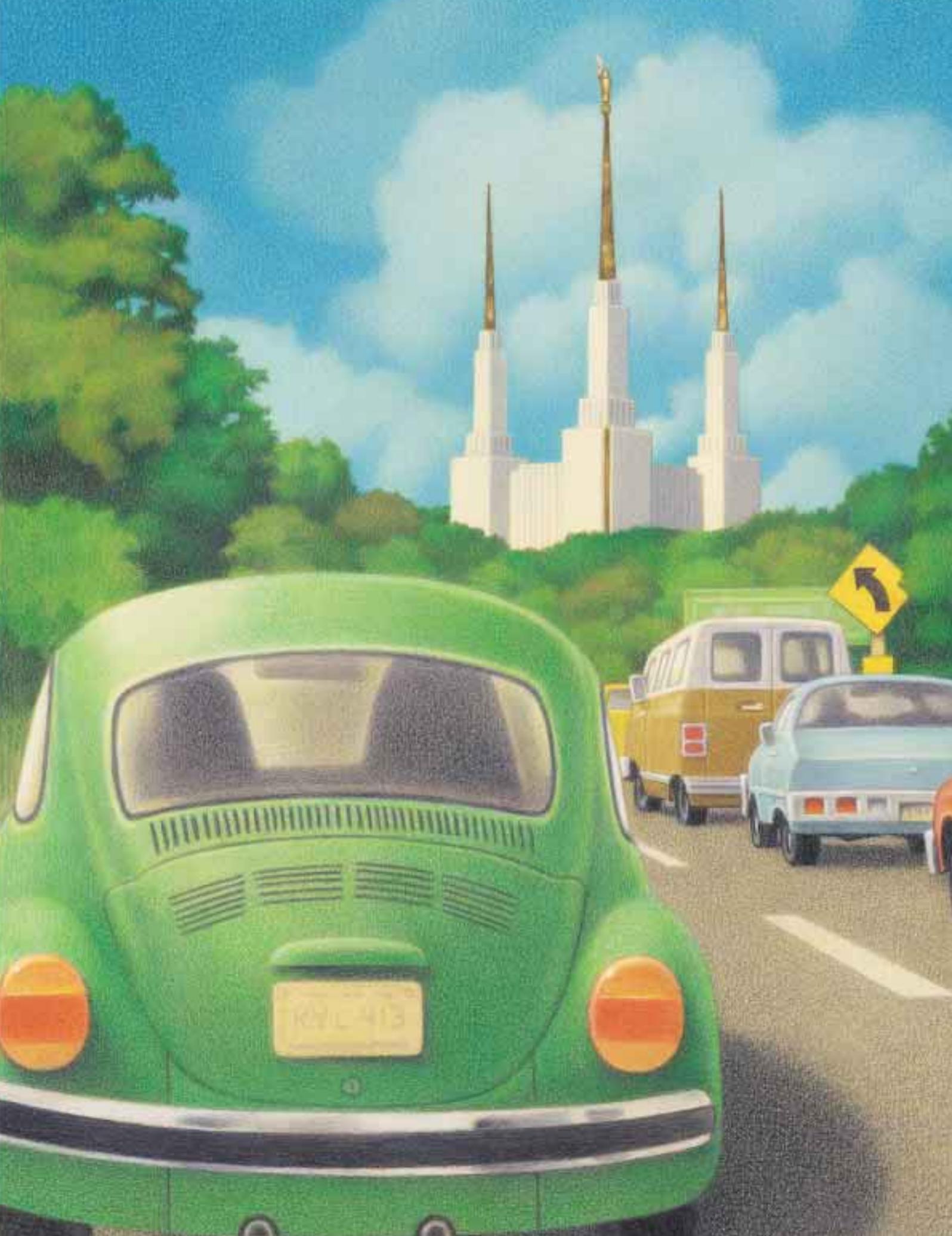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이제 모든 성도들은 숨겨지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었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서 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나 태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표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 표준들을 지킬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며 그들도 옳은 길을 따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산 위에 있는 동네”, *Tambuli*, 1990년 11월호, 2~8쪽.





니파이후서 9:23

마태복음 3:16~17

모사이아서 18:8~10

마태복음 26:26~28

제3니파이 18:5~11

교리와 성약 20:72~79

주: 여러분이 책에서 종이를 떼어내고 싶지 않으면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그리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자료를 원하시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원하시면 world map을 클릭하세요.



그림



나는 회개하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니라.”(니파이후서 9:23)

마가렛 리퍼스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서 손뼉을 치며 기뻐한 적이 있나요? 물론경은 바로 그렇게 했던 백성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시기 위해 아빈아다이를 보내셨습니다. 아빈아다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노아 왕은 아빈아다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제사들 중 한 명이었던 엘마는 아빈아다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엘마는 “자기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백성들 가운데로 은밀히 다니면서, 아빈아다이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모사이야서 18:1)습니다. 엘마는 이 일이 노아 왕을 화나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마를 따르는 사람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엘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침례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모사이야서 18:11)

침례는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성약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모사이야서 18:9)

나의 침례 성약 디오라마

1. 친4쪽을 잡지에서 떼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큰 직사각형을 오려낸다.
2. 점선을 따라 직사각형을 접고, 아홉 개의 굵은 선을 칼로 그어 틈을 만든다.

3. 인물들을 굵은 선을 따라 오려낸다. 오려낸 침례받는 청년 그림을 침례 장면의 틈 사이에 끼워 넣는다.(그림 참조)
4. 오른쪽에 있는 풀칠이라고 적힌 부분을 앞으로 접어 세워 오려낸 성찬 장면을 풀칠하여 붙인다.(그림 참조)
5. 성구들을 굵은 선을 따라 오려 내고 참조 성구를 읽는다. 남아 있는 틈에 오려낸 성구 종이를 끼워 넣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58편 42절을 의외도록 도와 준다. 초등회 교재 3권 제10과에 나와 있는 침례의 단계들 (1) 후회한다, (2) 용서를 구한다, (3) 잘못을 고친다, (4)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에 대해 말해 준다. 커다란 원을 그린 후 원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각 부분에 원리를 한 가지씩 적는다. 원을 바닥에 놓는다. 회개가 필요한 상황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 예: “새로운 친구를 보았지만 함께 놀자고 권하지 않는다.” 한 어린이를 지명하여 작은 물체를 원의 네 칸 중 한 칸 위에 던지고, 사례를 한 가지 읽게 한 후, 회개의 그 단계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보라고 한다. 다른 어린이들도 게임에 참여하게 한다. 제3니파이 9장 22절을 읽는다. 회개 단계에서 구세주의 속죄 역할에 대해 간증한다.

2.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 이야기하고(마태복음 3:13~17 참조),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고 말한다.(니파이후서 31:4~13 참조)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1) 여러분이 최소한 여덟 살이 되어야 한다. 침례에 관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여러분은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접견을 하게 된다.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의 일원에게 부탁해서 접견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한다. (3) 여러분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침례복을 보여 준다. (4) 침례는 합당한 제사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행해야 한다. 5번 활동 참조 (5) 침례는 침수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이다. 제사나 귀환 선교사를 한 명 초대하여 침례를 어떻게 행하는지 설명하게 한다. (6) 여러분은 또한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침례 받고 확인 받았을 때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한다.(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후 즉시 확인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서 확인을 받는다.) (7)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런 후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신에 관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난폭한 자에게 맞서서

소년시절,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야구 팀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의 팀이 휴일인 미국 독립 기념일에 상대 팀과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의 좌석이 꽉 차 있었어요.



몸은 괜찮니?

다친 애는 괜찮지만,
데이비드 네가 대신
공을 쳐야겠는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드의 팀 선수 한 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데이비드는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접수는 동점이었지요. 데이비드가 타석에 서자, 관중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데이비드는 투 스트라이크를 당했어요.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한 개만 더 던지면 아웃이 될 상황이었죠.

투수는 화를 내면서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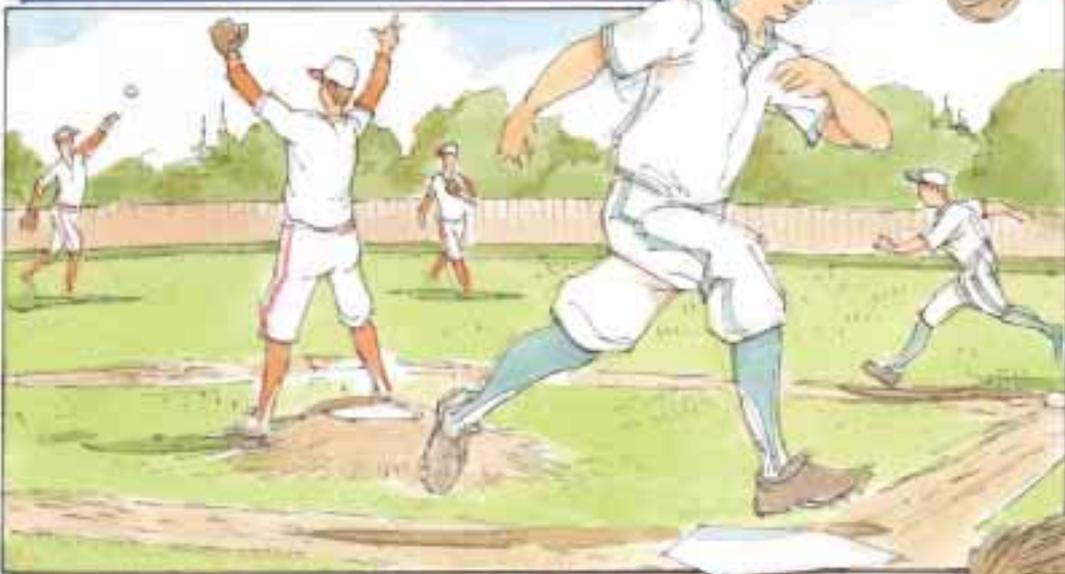
야구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데이비드는 침착했습니다.



삼진이야.
나가란 말이야, 이 꼬마야.
안 그러면 혼내줄테니까.

심판이 투 스트라이크라고 했는데요.
아웃이 되려면 투수판에 돌아가서
공 하나를 더 던져야 할거예요.
그래도 늦진 않잖아요.

투수는 데이비드의 얼굴에 나타난 굳은 결심을 보고 투수 판으로
돌아갔답니다. 데이비드의 방망이가 힘차게 공을 때렸고, 그는
2루로 달려갔어요. 다음 타자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홈에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데이비드의 팀이 승리했어요.



그 득점에 환호한 팀 동료들은 난폭한 자에게 용감하게 맞선
데이비드의 용기에도 환호했는데, 데이비드도 그 환호의 이유를
알고 있었답니다.

Llewelyn R. McKay,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1956년), 162~163쪽에서 발췌

응답된 기도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엘마서 37:37)

매 달 금식 주마다 제 아내와 저는 올 수 있는 모든 손자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하는 밤을 갖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렸을 때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경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것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식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밤 동안 제 손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있니?”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전 하나나 장난감은 영원한 계획에서 볼 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켜 주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응답을 얻기 위해 더 오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현재 서 유럽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제럴드 엔 런던 장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멜빈 리빗, 교회 잡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과 꽤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훌륭한 직장을 갖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으며, 이제 막 새 차를 샀습니다. 갑자기 2년 동안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서 대신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건 너의 선택이다. 그러나 꽤 중대한 결정이다. 이틀 동안 어디서 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금식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만일 네가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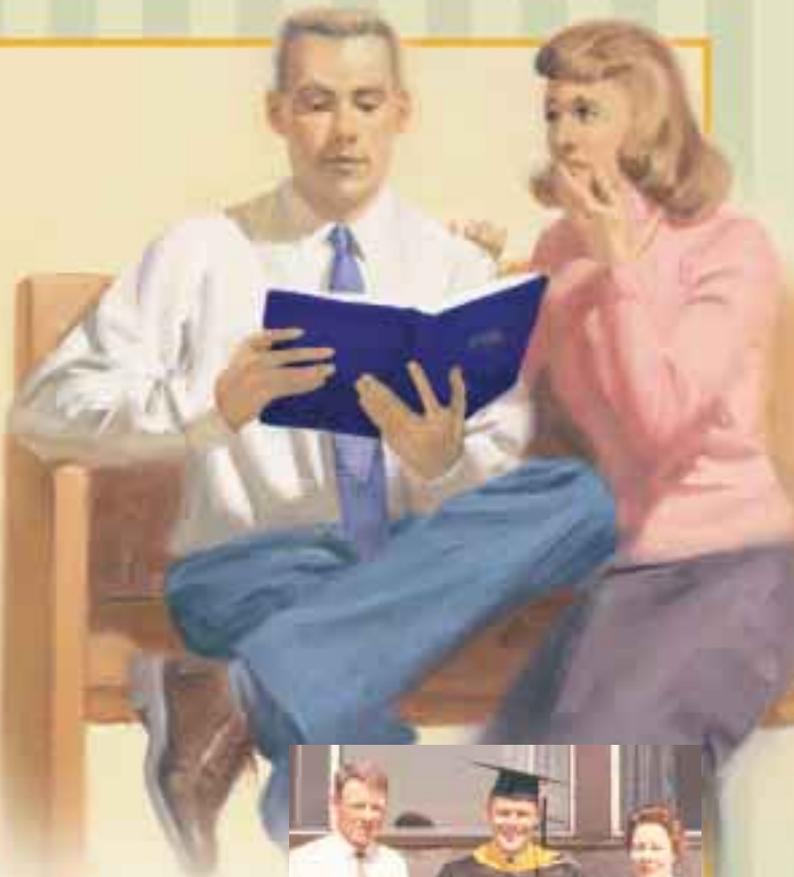
저는 제 결정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에 제 경전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느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해 보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그 다음주 토요일에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산으로 올라갔고 다시 경전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열리는 성찬식 시간 전까지 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에 대해 여전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빼려고 했을 때 차가 눈 더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를 빼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셨으므로, 저는 여자 친구를 태우고 성찬식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 동안, 저는 무심코 찬송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높은 산 아닐지 난 모르나”라는 제목으로 불렸던 찬송가가 펼쳐졌습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참조)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읽지 마!” 그러나 저는 “어느 곳에나 주 원하면 내 가리리”라는 가사를 포함해 3절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사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여자 친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려고 하죠? 그렇죠?”라고 물었고 저는 “그래요, 갈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했다면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 선교 사업은 저를 커다란 행복으로 이끌었고, 기도는 저를 선교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왼쪽: 2000년 여름에 아내 및 가족과 함께. 위: 선교 사업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오른쪽: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며 부모님과 함께.

이 경험은 결정을 할 때 주님께 상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증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쭙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확실히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옆에 계시면서 어린이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니파이후서 31:17)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저자의 와드에 있는 한 가족의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

로간은 지난 주에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침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로간과
로간의 아버지는 흰옷을 입고 침례탕 가까이
앉았습니다.

로간의 사촌인 라이언은 침례식에서 말씀을
하도록 부탁 받았습니다. 개회 찬송과 기도
후에, 라이언은 신앙개조 제4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그런 후 라이언은 파란색의 네모난 종이를
교실 한쪽 끝 바닥에 놓고 하얀색의 네모난
종이를 다른 쪽 끝에 놓았습니다. “로간, 이리
와서 이 파란색 종이 위에 서 보겠니?”라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카펫트를 밟지 않고
파란색 종이에서 하얀색 종으로 옮겨 갈 수
있겠니?”

로간은 교실 건너편을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멀어서
혼자서는 그 쪽으로 갈 수 없지. 그럼 너는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로간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간의 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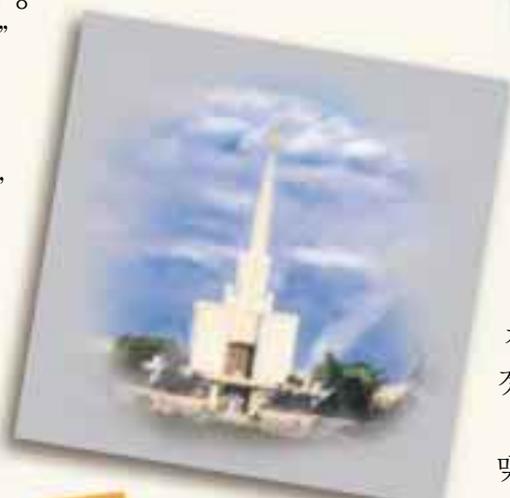
그라: 해리 헨더슨,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 로버트 시인, 불행의 시인 부분 제9; 존 루크; 장지 원정, 물, 칼날; 콜로라도 연비 장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라이언은 여섯 개의 네모난 종이를 바닥에 더 내려놓았습니다. 각 종이는 모두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섯 가지 단계를 주셨어. 그게 뭔지 아니?”

로간은 라이언이 방금 읽은 신앙개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이에요.” 로간이 빨간 종이를 옮겨가자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회개예요.” 로간은 노란 종이를 자리를 옮겼습니다.

라이언은 초록색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종이는 네가 오늘 밟으려는 단계 중 하나를 의미한다.”

로간은 웃으면서 초록색 종이 위로 올라갔고, “침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얀색 종이에 훨씬



거야. 마지막 사각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니?” 로간은 더 이상의 단계를 생각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경전이 가르치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의로운 길에 머무는 것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약들을 맺은 후에, 우리는 충실하게 남아 있어야 해.

로간은 자리에 앉았고 라이언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 후 로간과 그의 아버지는 침례탕에 들어갔습니다. 신권의 권능으로, 로간의 아버지는 그를 침례했습니다. 그들이 마른 옷으로 갈아 입을 후, 로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받았습니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여전히 세 장의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종이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해,”라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거칠 또 다른 단계지.”

로간은 오렌지색 종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두 종이는 무얼 의미한다고 생각하니?”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로간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개조 제4조에는 첫 번째 네 가지 원리와 복음 의식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침례는 자기가 맺게 될 많은 성약들 중 첫 번째라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회색 종이는 성전을 의미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맞아!” 라이언이 활짝 웃었습니다. 내가 침례 받고 확인을 받은 후에, 너는 신권과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게 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의식(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쪽.

“네가 바로 지금 느끼는 그 영을 기억하렴.” 라이언은 로간을 껴안은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 영이 너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로간은 이 특별한 날을, 하늘의 집으로 가는 중요한 두 단계를 밟은 이날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는 콜로라도 러브랜드 스테이크 빅 톱슨 와드의 회원이다.

십 리를 동행하여

바바라 호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신문을 파는 사람 곁을 처음으로 지나치게 된 것은 세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두 살짜리 에밀리를 시켜 그에게 돈을 주고 신문을 가져오게 했다. 여섯 살인 리사가 물었다. “저 아저씨는 뭐 하는 거예요? 왜 가게에서 신문을 안 팔고 길에서 팔아요?”

나는 그가 특별한 신문을 팔고 있으며 그 특별한 신문을 파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종종 그들은 집이나 그들을 도와 줄 가족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신문을 팔아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 수 있고, 우리는 그 신문을 사 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여러 주가 흐른 뒤 어느

비오는 날, 우리는 아이들의 체육 수업에 가고 있었다. 가게에 들러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 코스를 택하지 않았다. 물건을 산 후에, 내가 수업에 가기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할까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옆길을 통해 가는 지름길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거리의 상인들이 있는 모퉁이를 지나가는 더 먼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나는 리사를 쳐다보며 그 아이에게 결정을 내리게 했다.

“먼 길로 가요, 엄마, 그리고 신문을 사요.”라고 리사는 말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비오는 날 십 리를 동행하고, 이미 신문이 많았지만 하나를 더 샀다.



바바라 호프는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 스테이트 지부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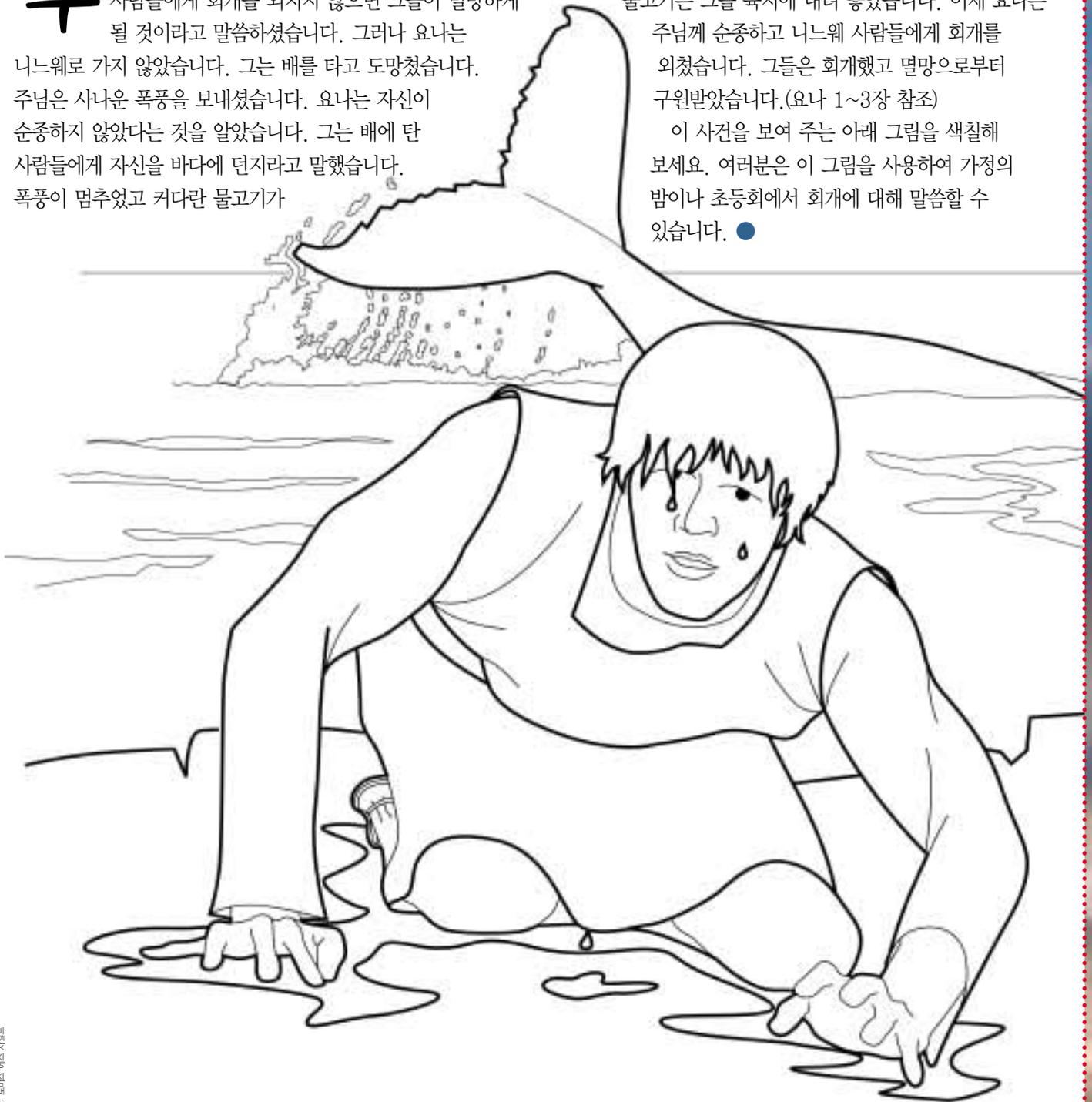


요나의 회개

주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사나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멈추었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삼일 후에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요나 1~3장 참조)

이 사건을 보여 주는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사용하여 가정의 밤이나 초등학교에서 회개에 대해 말씀할 수 있습니다. ●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마태복음 19:27)

선장의 아들

리사 퍼넬리우스

저자의 할아버지의 경험을 근거하여

페이케는 운하의 끝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배의 갑판으로 뛰어올랐다. 페이케가 배 뒤쪽의 하얀 오두막으로 달려갈 때, 그의 나무 신발이 요란하게 덜그럭거렸다.

“바로 오늘이야.” 열두 살의 소년은 흥분이 되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선교사들에게 대답을 하실 거야.”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186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페이케는 그들을 보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에 그들을 집에 데려왔다. 그러나, 그는 곧 장로들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가르쳐 줄 더 훌륭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오두막 문 앞에서, 페이케는 나무 신발을 벗고 물이 빠지도록 신발을 뒤집어 놓았다. 그의 학교에 있는 교실은 그의 집인 작은 오두막집보다 컸지만, 페이케는 장작이 타오르는 난로가 있는 조그만 부엌을 좋아했다.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은 부엌 뒤쪽의 찬장 문 뒤에 있는 접이식 벽 침대에서 잠을 잤다. 장남인 페이케는 배 앞 쪽에 있는 창고에서 잠을 잤다.

그는 거실로 살짝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스웬슨 장로는 자신과 로프그렌 장로가 그 많은 겨울 밤들 동안 바로 이 방에서 들려 주었던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다시 가르치고 있었다. 페이케는 매번 영의 따스함을 느꼈고 당장 침례 받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가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약속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침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진 침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은 아버지가 선교사들에게 아버지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다. 페이케는 몇 주 동안 매우 열심히 기도해 왔고 아버지의 대답이 긍정적인 거라고 확신했다.

“윌트휘스 형제님”, 로프그렌 장로가 아버지께 말했다. “저는 형제님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님은 기꺼이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로프그렌 장로가 물었다. “형제님은 필요한 희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방안은 조용했다. 페이케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조차 숨죽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응시했다. 아버지는 모진 세월의 자국이 역력한 얼굴을 조용히 드셨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페이케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뺨에 흘러 내리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짓고 계셨다.

“이번 달 안으로 미국으로 항해할 준비를 하겠소.”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미국으로 항해를 한다구요?” 페이케가 불쑥 물었다.

“그렇다, 페이케.” 아버지가 답하셨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솔트레이크시티로 오라고 요구하셨다.”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 “기르트 삼촌이 우리 배를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왕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충실한 조상들의 결심과 비견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희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8쪽.

사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배는 언젠가 제 배가 될 거였잖아요! 저는 선장이 될 거였구요!” 페이케는 간절히 아버지에게 상기시켰다.

“안다. 나도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았어.” 아버지가 말씀했다. “네가 미국에 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기르트 삼촌이 널 고용해서 데리고 계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네가 충분한 나이가 되면, 삼촌은 너에게 배를 팔 거야.”

페이케의 온 몸에 화가 끓어 올랐고, 아버지의 침례에 대해 그가 느낀 모든 기쁨은 사라져 버렸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했어요.” 페이케가 소리쳤다. “그렇지만 교회와 자신의 나라, 친척, 배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건 너무해!”

페이케는 뱃머리에 있는 그의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물에 빠지지 않고 잘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습관적으로 뱃전을 작은 망치로 치곤 했다. 그 날 밤 그는 계속해서 뱃전을 두들겼다.

매트리스에 누운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는 네덜란드 지방의 운하들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배 위의 삼각 돛을 생각했다. 작은 식료품 배가 그들의 배 옆에 배를 대고 어머니가 장을 보시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러나 주로 페이케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높다란 돛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대해 생각했다. 어느 날엔가 그는 선장이 되어 광활한 바다를 항해할 것이었다 ... 미국으로 떠나는 그의 가족에게 이별을 고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페이케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침대 말에 앉으셨다. “미안하다, 페이케. 나는 네가 우리가 침례 받으면 미국으로 간다는 걸 아는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배를 떠나시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아빠가 선장이라는 직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미국에서 뭘 하실 건데요?”

“모르겠다. 항해는 내 인생 자체였지.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부르셨어, 그리고 네 엄마와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선장이 되겠다는 제 꿈을 포기하고 배를 떠나요?”

“그것은 너만이 내릴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이란다.” 며칠 전에 내가 똑같은 문제로 힘겨웠을 때, 나는 도움이 되는 경전 구절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부였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이 곧 배 ... 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22)라고 적혀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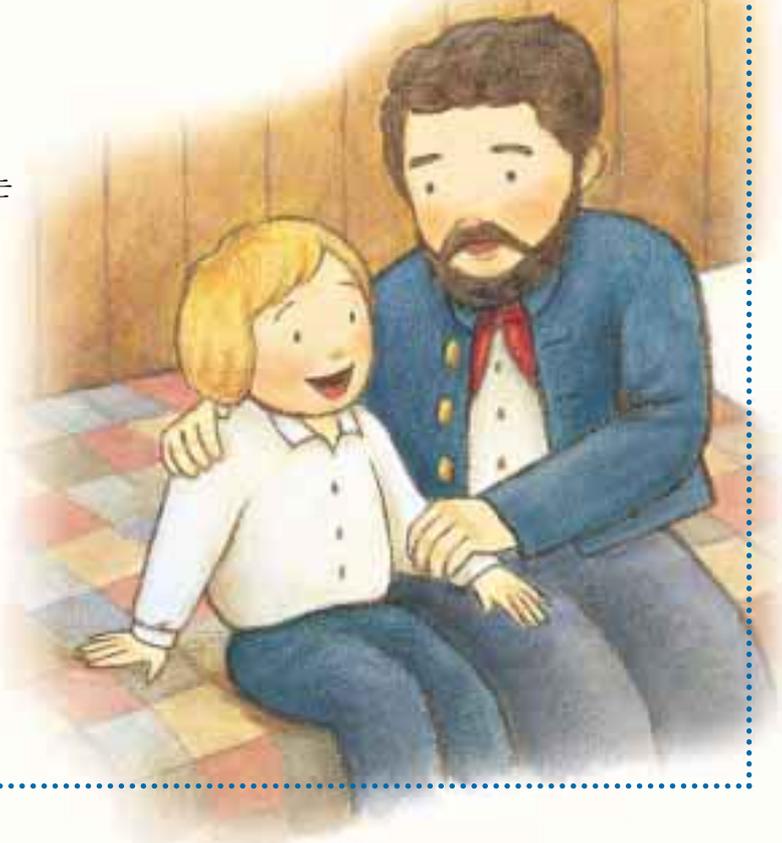
선장과 그의 아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페이케는 아버지의 맑고 푸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과 용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미국으로 함께 떠나기 전에 배를 가지고 한 번 더 나갈 수 있을까요?”

선장은 그의 아들을 끌어당겨 껴안았다.

“그래, 정말 그러고 싶구나.” ●

리사 퍼벨리우스는 펜실베이니아 요크 스테이크 챔버스버그 제1와드의 회원이다.



친구들

